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대로 진실만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7월 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61호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불교가치 담은 교육 자생력 확보가 필수

불교 인성교육 현황과 과제는?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불교 인성교육이 각광 받는 가운데, 교육 범주가 '차문화'와 '중독 예방' 등 불교와 유관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개발을 위해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 개발 · 인증위원회(위원장 혜거)는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인증 · 인성 프로그램 심의를 진행, 이날 제출된 프로그램의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불교계 안팎에서는 2016년 불교 인성프로그램의 '중독예방' 주제에 이어 '차문화' 주제 심의가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보완 제출이 요구된 프로그램은 10차 회의에서 인증된 '청소년 행복찾기 차명상 자비다선' 프로그램 외 '청소년 마음문화 차행법', '차 마시며 부처님 닮아요', '다도예절인성' 프로그램과 지난해 보류된 중독 관련 '스마트폰 중독치유와 예방' 등이다.

인증위원장 혜거 스님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함께 성과가 있는 점이 분명하지만, 체험을 확장한 수준에 불과했다. 불교적 이론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교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나, 지도자의 실참 등 전문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에 불교 가치를 구체적으로 담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다.

동방문화대 교수 인경 스님은 "불교 유관 분야로 진출 할수록 그 근간에 불교 가치를 어떻게 담는지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인증 프로그램도 불교 가치를 담은 이론근거를 보다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교 가치를 기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경 스님은 "결국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교계가 자생적인 인성교육을 진행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증된 불교 인성프로그램은 12개로 대부분이 정부 지원의 '청소년 마음등불' 명칭으로 전국서 운영 중이다. 참여인원이 집계되는 청소년 마음등불의 경우 2014년 520명, 2015년 556명, 2016년 737명이 참여하는 등 매년 참석자가 늘고 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용어에서 조차 불교적 용어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 인큐베이팅을 벗어난 불교 인성교육이 불교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려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각광받는 명상 외 불교문화와 연관한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또 석 · 박사 자원이 태부족한 가운데 연구인력을 배양하고, 일반 사회에도 효과를 입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 고려대 연구교수는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서는 불교 인성교육 연구발표를 종단 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종단 차원에서 직접 연구프로젝트를 가동하거나 일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원하고 그 결과를 유관 학술지에 발표할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에 알려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차문화' '중독예방' 등 신규프로그램 심의 보류
불교가치 체계화 미흡 평가

기존 프로그램 정부 의존
자생 위한 조사, 연구 필요
종단 차원 프로젝트 제안도

성해영 서울대 교수는 "불교에는 자연과 함께 한 사찰이라는 유형 자원과 스님이라는 인적 자원, 그리고 불교는 전통문화라는 문화적 자원을 모두 갖고 있어, 다른 종교에 비해 인성교육에서 한발 앞선 상황"이라며 "인성교육 자생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불교 전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6일 '미래사회의 인성교육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녀의 꿈, 함께 하겠습니다" 소녀상을 태운 151번 버스가 일본대사관 인근 안국역에 다다르자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듯 구슬픈 노랫가락에 시민들은 먹먹한 가슴을 쓸어내린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의 151번 버스 5대에 소녀상이 설치됐다.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임진욱 동아운수 대표가 낸 아이디어다. 16일 우이동 차고지를 찾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 스님은 소녀상의 손을 꼭 잡으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잃어버린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녀상을 태운 151번 버스는 총 5대로, 9월 30일까지 운행된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종단 질서 훼손, 엄중 조치해야"

조계종 원로회의, '종도에게 드리는 글' 발표

안팎 잡음에 입장 표명
선거 중립 · 화합 당부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 벌어지는 잡음에 대해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 질서 훼손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하)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5차 회의를 열고 '종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원로 23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종단 안팎으로 혼란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종단 집행부는 주인의식과 여법함을 유지하고, 종헌종법 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 내외로부터 과도한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해 종단의 가치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부추기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동원 가능한 제재와 법적수단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부 문제를 외적인 힘을 빌려 확산하는 일이 있다면 경계 대상이다. 정당과 여법에 어긋난다면 종단은 정체성과 권위를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회의는 또 "종단 소임자는 철저하게 선거 중립을 지키고, 화합과 안정의 기반 위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전 종도는 잘 헤어려서 매순간 원력을 점검하고 부질없는 낭비가 있는지 살펴 불일증휘 법륜상전에 일로 정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로회의는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천했다. 아울러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원로의원 징계 시 원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중앙종회에 종헌 및 원로회의 법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진흥원 신임 이사장 이각범 이사 추대

15일부터 3년 임기 시작



(재)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 사진)가 추대됐다.

진흥원은 "지난 6월 제163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이각범 이사를 추대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이각범 신임 이사장 임기는 8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1948년생인 이각범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과 빌레펠트대학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으며,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1995~1998) · 대통령 국가정보화 전략위원장 등 불자 오피니언 리더로서도 활약했다.

신성민 기자

1161호 INDEX

시방세계 5
군종교구, 공군사관학교 '평화의불' 봉안



화엄만다라 B1 · 2
道伴의 향기 -명상나눔협동조합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www.hyunbulshop.com

조계종 기획실장 정문 스님 임명

사회부장엔 진각 스님


정문 스님


진각 스님

조계종 새 기획실장에 정문 스님(前사회부장)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4일 기획실장 정문 · 사회부장 진각(前교육부장) · 불교신문사장 초격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은 공석이 됐다.

기획실장 정문 스님은 성타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제12 · 13대 중앙종회의원, 연지암 · 임허사 · 보경사 주지, 총무원 사회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혜암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에서 수학하고, 해인사 사회국장,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포교국장, 조계종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금산사 주지후보 성우 스님 추대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16대 주지후보에 현 주지인 성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금산사는 8월 16일 경내 보제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16대 주지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학림사 주지 일원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산중총회는 49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산중총회 직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원회(위원장 종훈)는 성우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성우 스님은 "사부대중의 성원 속에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종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투명화, 효율적인 종무행정, 전주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 건립에 따른 인재등용, 포교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 각 말사 특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서 8.15법회… 침체된 분위기 속 '평화 발원'

광복 72주년 맞아 불교계 행사 잇따라

종단협 · 민추본, 평화기원 법회
南北 경색으로 합동발원문 무산
조계종, 대북특사 파견 검토 주문
공동선실천협, '평화 기도회' 봉행



8.15 광복 72주년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 봉행 모습.

8.15 광복 72주년을 맞아 불교계 곳곳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최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광복절 행사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 북미와 당국 간 평화적 대화와 해결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가 8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은 "현재 북미 간 공방은 이전의 위기들과 달리 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르는 임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8월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북한의 반발과 맞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국민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난 집 속 살림살이와 같다'며 삼계화택(三界火宅)이라 표현하셨다. 아울러 정인정과(正因正果)라 했다"면서 "평화의 결과를 얻으려면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한다. 온 국민이 마음 모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삼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광복 72주년을 맞는 오늘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면서 "남북관계 뿐 아니라 일본은 하루가 멀다하고 역사왜곡 시도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바른 역사로써 미래를 열어가야한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매년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불교가 함께 채택한 합동발원문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이날 자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만청 스님, 대각종 총무부장 범상 스님, 진각종 사회부장 덕운 정사, 조계종 사회국장 해량 스님, 김삼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석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광복절을 계기로 대북특사 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은 8월 14일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해야할 광복 72주년이다. 그런데 오늘의 한반도는 민족 참화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전쟁 위기가 감돈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군사적 방식은 결코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존과 상생, 합심의 정신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극으로 치닫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주와 같다"고 언급하며 "북미 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또한 하루빨리 관련국들이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미 갈등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8.15 광복절을 계기로 대북특사 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쟁을 방지하고 광복 이후 쌓아온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우리 민족이 공존과 상생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합심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교계에서도 광복절 행사가 잇따랐다. 부산 6대 종교지도자들이 광복을 기념하며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공동선 실천을 위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 이하 공동선실천협의회)는 8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서 '광복 72주년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기도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돌아보며 남북 평화 통일 및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도회에는 회장 정여 스님, 김계춘 신부,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72년 전 광복의 기쁨으로 행복했던 우리 선조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고 화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 하성미 기자

근대불교문헌 10종 英譯 완간

조계종 영역편찬위, 9월 12일 봉정법회

경허집 · 백교회통 · 각해일륜 등
2013년부터 5년간 번역 진행
국내외 전문 번역자들 동참해



한국 근대불교 대표 문헌 10종이 영어로 번역돼 세계에 배포된다.

조계종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편찬위)는 오는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 완간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지원금과 종단 예산으로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영역 · 발간된 문헌은 △〈백교회통〉(이능화 저, 정단비 역) △〈근대한국불교개혁론〉(한용운 외, 박포리 역) △〈근대한국불교논설집〉(최남선 외, 김성욱 역) △〈경허집〉(경허 저, 존 조르겐슨 역) △〈조선불교사고〉(김영수 저, 토니오 푸기오니 역) △〈조선탑파의 연구〉(고유섭 저, 이승혜 역) △〈근대한국불교시선〉(한용운 외, 데이비드 맥캔 역) △〈각해일륜〉(용성 저, 서정형 역) △〈불자필람〉(최취허 · 안진호 저, 영성준 역) △〈인명입정리론회석〉(박한영 저, 함형석 역) 등 총 10종이다.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은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국내외 도서관과 저명학자들에게 배포되며, 전자책을 제작해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편찬위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진광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출판사업은 '한국전통사상총서'의 정신을 계승한 사업"이라며 "근대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헌의 영역 출판은 한국불교사에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은 3차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정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교계 주요내빈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 및 정각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종헌종법 불태운 스님들 징계 나선다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 관련 명예훼손 등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교계 안팎에서 열리는 시위 · 집회 퍼포먼스에 대해 총무원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회의실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날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조계종 적폐청산 집회'와 관련,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강력 규탄했다.

브리핑을 주재한 홍보국장 효신 스님은 "조계종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며 "해당 퍼포먼스를 실시한 관련자를 호법부로 등원조치해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수갑을 찬 이미지를 합성해 시위를 벌이는 시위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효신 스님은 "선거를 앞두고 종단을 뒤흔들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도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선거법 관련 퍼포먼스를 '종헌종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종헌종법을 수호해야할 종회의원을 지내는 등 종단 지도부로 있었던 스님들을 포함한 이들 대중은 우리 스스로 정한 규범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간단히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이 집회에 참여한 스님들을 사진으로 채증하고, 호법부 등원과 징계를 운운하며 집회참여를 방해했다"면서 "집회방해 목적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및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여러 조치를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불사 시작된다

조계종, 8월 24일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이 본격 시작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된다.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로 오는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은 불교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현재 한국의 지정 문화재 중 70% 가량이 불교 성보문화재인 상황에서 체계적인 연구·보존을 위해서는 불교 자체 문화재 기관이 꼭 필요했다.

또한, 현행 문화재 정책이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뤄져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 불교 문화재가 적지 않았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으로 계획됐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하지만 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16m)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괘불 전문 복원·수리 기관에 걸맞게 건물 내부에는 전문 시설들이 들어선다.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부터 대형불화처리실·불화처리지원실·다목적보존처리실·지류/회화실까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보존센터 건립으로 얻어질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존 전문 인력 양성이다. 불교계 전문 보존기관이 없어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보존센터로 인해 향후 산학을 연계한 인력 양성·수급도 기대된다.

심주완 신도시TF팀장은 “이번 보존센터 건립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전문 진단, 진료, 복원 시스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문화재 관련 종단 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장 정현 스님은 “보존센터 건립을 통해 종교성과 문화재의 성격을 동시에 간직한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보존처리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8월 24일 열리는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종진 문화재청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내부 조감도.

대형불화 전문 보존기관 목표

16m 괘불 걸고 보존처리 가능

건립 시 최대 민간 기관될 것

비지정 성보 문화재 보존 역점

불교계 문화재 인력 양성 기대

오는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

강제징용희생자 고혼, 종교가 달래다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 광화문서 추모제

일제강점기 일본 본토로 강제징용 돼 노역을 치르다 연고도 없이 죽어간 선조들의 넋을 종교계가 8.15광복절을 맞아 위로했다.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위원회(상임위원장 무원)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 국민추모제’를 거행하고, 7대 종교 추모의식을 올렸다.〈사진〉이 행사는 앞서 6일 봉환위가 일본 도쿄 재일동포 사찰 국평사서 일제강점기 무연고 노무동원자들의 유해 33구를 봉환해온 것에 따른 것이다. 행사에는 봉환위 관계자들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종교별 대표, 도쿄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봉환위는 일본서 가져온 희생자 유해 33구를 제단에 모시고, 범패 ‘내포영산대재(대전불교사암연합회 집전)’로 고혼을 달랬다. 또한 KCRP서 각 종교별로 추모의식을 올렸다.

봉환위 상임위원장 무원 스님은 국민선언을 통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희생된 유해가 일본, 사할린, 사이판, 괌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방치된 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타향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모형제들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자”고 당부했다.



국평사 주지 윤벽암 스님은 “군수공장과 비행장에서, 철길교량공사장과 탄광에서 무참하게 희생된 무주고혼이 100여만에 이른다”며 “오늘의 봉환이 일제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동포들의 유해를 더 많이 찾아내 고향의 품에 안기도록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환위가 일본서 봉환해온 유해 33구는 8월 16일 서울시립승화원에 안치됐다. 윤호섭 기자

“동물보호 주무부처 환경부 이관하라”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 60여 곳 기자회견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며 축산물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장서는 농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년간 동물복지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청해왔음에도 불구, 7월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복지 주무부서가 종전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축산 산업 증대를 목표로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권단체케어(대표 박소연)·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동물보호 및 시민사회 단체 60여 곳은 8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촉구했다.

이들은 “축산업을 주된 과제로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동물복지를 책임질 수 있느냐”면서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0년 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제도화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을 물으며 “그동안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 등의 관여로 이뤄졌다”면서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개발 위주 국토교통부서 보전 위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점을 예로 들며 동물복지 주무부처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연 동물권단체케어 대표는 “환경부로 옮기는 게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와 보전을 목표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⑥ 모국어 사랑

사투리, 정겹지 아니한가

법정 스님께서 40대에 미리 써놓았던 유서 한 부분이다. 스님께서는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 모국어를 더 사랑하고 출가 사문이 되어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남겼다. 유서 한 부분이지만 모국어란 살가운 말이 오늘은 내 가슴에 꽂힌다. 문단 말석에 앉은 소설가로서 글을 밥 삼아 일 삼아 써온 사람이어서 더욱 그런지 모른다.

내가 샘터사에 입사했을 때 편집주간이었던 분이 “스님의 두 번째 수필집 제목을 입석자(立席者)로 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께서 지은 ‘입석자’를 샘터사 김재순 이사장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어 제시하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때부터 스님께서는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았나 싶다.

이후 스님의 책은 실무담당자인 내가 불일암을 오가면서 펴냈던 것 같다. 〈텅 빈 충만〉〈버리고 떠나기〉〈물소리 바람소리〉〈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말과 침묵〉〈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등등이다. 〈텅 빈 충만〉은 선가의 용어인 진공묘유(眞空妙有)를 푼 우리말이다. 참으로 비었는데 묘하게도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진공묘유이다. 〈버리고 떠나기〉도 마찬가지다. 구름처럼 물처럼 떠돈다고 하여 수행자를 운수납자(雲水衲子)라고 하지 않은가. 〈물소리 바람소리〉도 자연의 무정설법(無情說法)을 편하고 쉬운 우리말로 환치한 것이다.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을 경고한 제목이고, 다만 〈샘터〉 산방한담 난에 연재된 원고는 별 수 없이 그대로 〈산방한담〉이란 책이름으로 발간했는데 독자들의 반응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난다.

한편, 스님의 〈인도기행〉은 나로서는 결코 잊지 못할 책이다. 스님께서 인도로 떠나시기 전이었다. 나는 스님을 을지로 상가로 모시고 가서 작고 가벼운 카메라 한 대를 사드렸던 것이다. 스님께서 고르신 제품은 저가의 올림푸스 자동카메라였다. 당시 〈인도기행〉은 스님 특유의 사유가 밴 글과 스님께서 흥미롭게 찍은 소박한 사진들로 채워진 여행기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진가의 강렬한 사진으로 바뀌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 대상을 바라보는 스님의 탐구밀도와 내 작은 정성이 빛을 잃어버린 듯해서였다.


일러스트·정윤경

스님께서 한 번은 내게 “무염거사, 박경리 씨가 〈토지〉에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실감나게 한 것처럼 무염거사도 전라도 사투리로 써 봐요”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때까지 나는 소설을 쓸 때 습관적으로 표준말만 구사했는데 스님의 권유 덕분에 영감이 하나 스치는 듯했다.

결국 나는 정약용의 유배생활을 그린 장편소설 〈다산의 사랑〉,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에 전라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를 소개하면서 토속어가 얼마나 정겨운지를 깨달았다. 모국어의 소중함과 사투리의 가치를 새삼 깨우쳐주신 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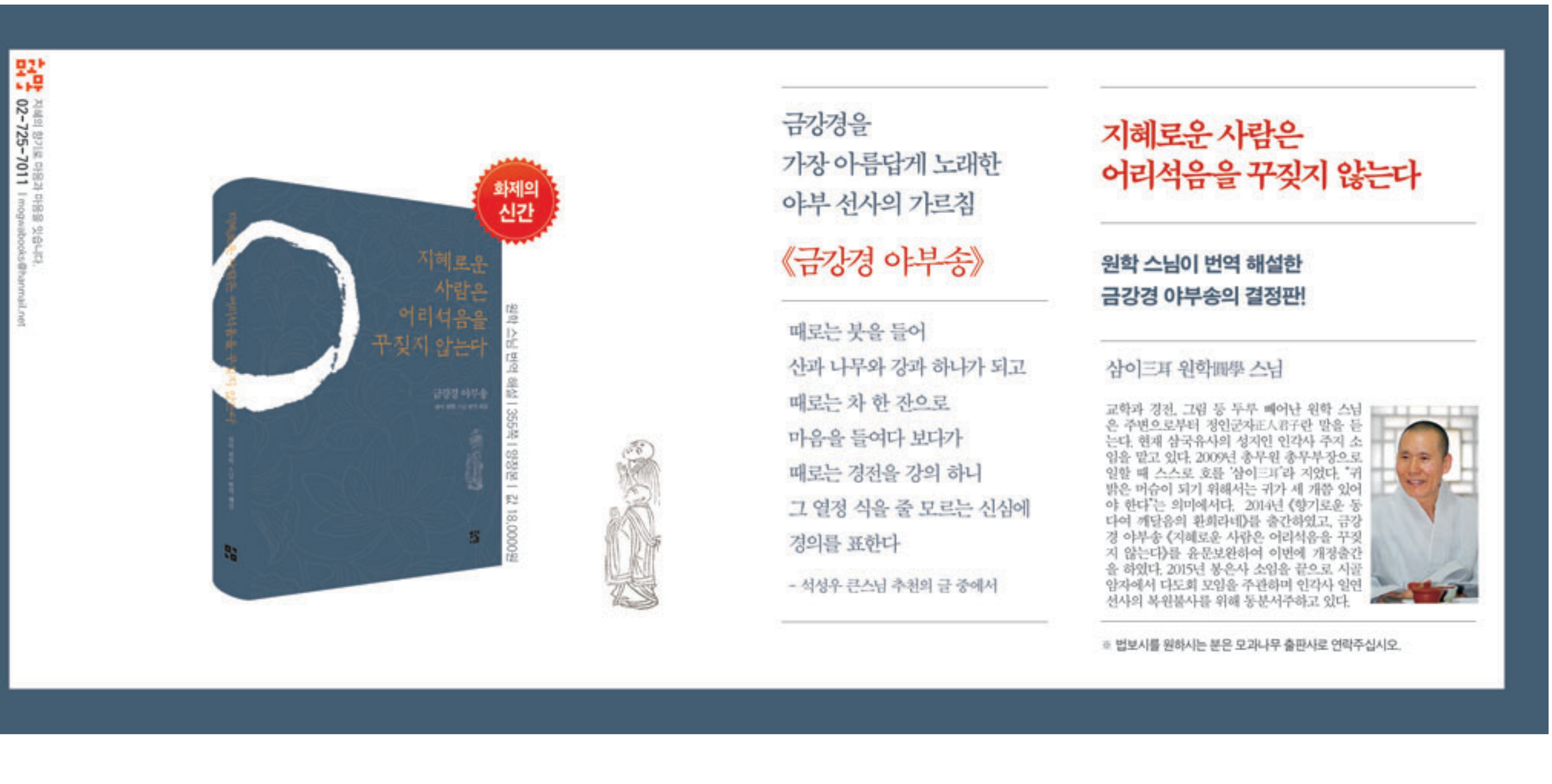
진관사, 국행수륙재 8월 27일 입재

10월 15일까지 49일간

조선시대 왕실에서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던 국행수륙재가 서울 삼각산 진관사서 거행된다.

진관사(주지 계호)는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경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국행수륙재를 봉행한다.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의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하였던 중심 사찰이었다. 당시 의례문헌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설행(設行)하고 있으며, 의식·설단·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뤄지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일 주 문



염불철야수행학림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염불철야수행학림 '월래, 괜찮아'를 진행한다. (033)339-6777



문화재사업 '사시락락'

정도 보은 법주사 주지 스님은 8월 19일 입재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문화재 활용사업 '사시락락'을 진행한다.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 강연

혜민 마음치유학교장 스님은 8월 29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주최 '제64회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서 '행복'을 주제로 강연한다.



태고종 대전종무원장 취임

법안 논산 안심정사 주지 스님은 8월 12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태고종 대전교구 제20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종로노인福 증축 완공

정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8월 25일 오전 10시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수평증축 완공식을 개최한다.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9월 9~10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서 '제15회 8재계수계실천대법회'를 봉행한다.

현성 스님, 어르신 삼계탕 공양



서울 현성정사 주지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8월 11일 논골문화원에서 지역어르신 1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공양을 올렸다. 현성 스님은 서울구치소와 서대문구 관내 독거어르신 돕기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현성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불자들이 조금씩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60호(8월 16일자) A3면에 보도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기사에서 신광 스님 소속사찰을 **'일산 삼학 법보사'**로 바로잡습니다.

"목사·신부와 함께 당신의 고민 듣습니다"

Interview

3인 3색 토크콘서트 나서는 진명 스님



스님-목사-신부 다양한 주제로

종교·주제 관계없이 위로 목적

8월 28일 AK 플라자 문화센터

"종교 화합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세 종교가 함께 화합해 대중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주고자 합니다. 신앙 얘기뿐 아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조계종 前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목사, 신부와 함께 3인 3색 토크콘서트를 나선다. 진명 스님은 김진 목사, 홍창진 신부와 8월 28일부터 전국을 돌며 '3인 3색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위로하겠다는 취지다.

진명 스님은 "우리 셋이 작당해서 하게 됐다. 신부님과 tvN '오 마이 갓' 프로그램을 함께 하던 중 신부님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 또 목사님이 김진 목사라는 말에 안심이 돼서 하겠다고 했다"고 토크콘서트 동참 계기를 밝혔다. 스님은 홍창진 신부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을 맺었다. 김진 목사와는 법정 스님을 모시던 20대 때부터 오며 가며 보고 지낸 사이다. 진명 스님은 "우리 셋은 실제로도 아주 친하다. 그만큼 토크 콘서트에서도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종교의 성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남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다. 진명 스님은 "종교 화합은 우리 도량 안에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냈다"며 "요즘 시대가 어려워 힘든 일을 겪는 대중이 많다. 그런 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고자 했다. 종교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세 종교가 함께하는 첫 토크콘서트인 만큼 주제 선정 역시 쉽지 않았다. 토크콘서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진명 스님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토크콘서트기에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직 없지만 첫날엔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진행해보고 이후 주제를 달리할지, 계속 이 주제로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까지 이야기할 것이다. 고민과 관련된다면 어떤 것이든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 종교에 비해 유독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은 불교. 스님이 목사, 신부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도반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진명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내 도반들은 다들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었는데 하나같이 내게 '잘 해보라!'고 하더라. 이 토크콘서트는 우리 종교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기 때문이다. 그 말에 큰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종교화합의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크콘서트는 8월 28일 오후 1시 반 경기 평택시를 시작으로 △30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9월 7일 오전 11시 강원 원주시 △9월 19일 오후 2시 반 경기 수원시 △9월 20일 오후 2시 40분 경기 성남시 각 지역 AK플라자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박진형 수습기자**

故힌츠페터 부인, 진관사서 평화 찾다

8월 11~12일 서울 진관사

템플스테이 참여

영화 '택시운전사'가 연일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개봉 열흘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속 독일기자의 실제 주인공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드(80)가 서울 진관사를 찾았다.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택시운전사' 관람을 위해 지난 8일 한국을 찾았다. 이튿날인 9일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후 눈물을 펑펑 쏟은 힌츠페터 부인은 11일 서울 진관사를 찾아 명상하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힌츠페터 부인은 "영화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내면은 강하고 외면은 부드러웠던 생전 남편의 모습이 잘 표현됐다"면서 "남편과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사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절에서 하루 묵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진관사서 참선하는 힌츠페터 부인(사진 오른쪽)

힌츠페터 부인은 그동안 한국에 8차례 방문했지만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들뜬 마음을 전했다.

"그저 관광을 위해 왔다면 사찰문화를 체험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오늘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 밖에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힌츠페터 부인은 특히 진관사 선우 스님과 함께한 참선 시간 동안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낼 수 있었다면서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기쁘다고 웃어보였다.

"한국 사찰은 굉장히 조용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산속에 자리 잡아 자연의 일부에 들어와 있는 듯 느껴집니다."

힌츠페터 부인은 이날부터 1박2일간 휴식형 템플스테이에 임하며 한국의 전통사찰문화 체험 기회를 갖는다.

한편 故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의 ARD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1980년 5월 19일 일본 도쿄의 라디오 방송에서 소식을 접하고 광주로 향한다. 계엄군에 의해 검문소에서 저지당하자 그는 외국 회사 직원으로 위장, 광주에 진입한 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끔찍한 민낯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렸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위르겐 힌츠페터와 동행한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수불 스님, 이옥선 할머니 위문



2015년 대원상 수상금을 위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위문금으로 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2년 만에 이옥선 할머니를 만났다.

수불 스님은 8월 15일 경기도 광주 참조은병원에 입원 중인 이옥선(90) 할머니를 방문해 금일봉과 과일바구니를 전달했다. 2년 전 수불 스님은 광주 나눔의집을 방문해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돕겠다. 또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연등사 생전예수재 및 백중천도재



안성 연등사(주지 도심)는 8월 6일 극락전에서 합동 생전예수재 및 백중 천도재를 진행했다. 이날 재에는 법주 고암 스님(성도원 주지)및 영산재보존회장 구해 스님 등 스님과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고암 스님은 "100가지 아는 것보다 1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질투 버리고 바른 마음, 지혜로운 생각으로 지혜를 닦자. 정법을 기둥 삼아 큰 생각으로 살아가자"고 설했다.

연등사 주지 도심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자비의 자비 마음을 간직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일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재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8월 7일 마곡사 관음전에서 한국불교 최고 어장으로 평가받는 취담당 일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 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철웅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등 문도 스님 5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8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하늘법당 최초 '자비광명' 불꽃 지피다

조계종 군종교구 4기 첫 행보 공군사관학교 '평화의불' 봉안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행사가 가능할까?"

"부처님 가피가 있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비가 그칠 겁니다."

중부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8월 11일, 청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 도열한 관광버스 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자리는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혜자)가 신임교구장 혜자 스님 취임 첫 행보로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을 위해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찾은 것이었다. 여름 휴가철 수시간 동안 피서 인파를 뚫고 도착한 청주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혜자 스님의 평화의불 봉안 취지에 공감한 108산사순례기도회 1200여 대중들은 발이 묶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 같이 분등을 준비하자 비가 그쳤다. 무더웠던 이날 날씨도 선선함이 느껴졌다.

신임교구장 취임 첫 행사
평화불꽃 관음보살로 화현
신심증장과 평화기원 함께해
"평화 위해 불자 힘 모으자"



조계종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불자대중들과 평화의불을 분등하는 순간 불꽃이 마치 보관을 쓴 관음보살처럼 타오르고 있다. 불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관음보살처럼 평화의불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들길 기원한다.


성무호국사를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의 모습.


혜자 스님이 평화의불을 이운하고 있다.


열을 지어 공군사관학교를 참배하는 대중들.


이날 초코파이와 지원보시금도 전달됐다.

평화의불은 혜자 스님이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해 DMZ를 시작으로 53기도도량 순례를 하며 전국사찰에 분등하고 있다. 특히 혜자 스님은 군종교구 취임과 함께 전방부대 군법당의 평화의불 봉안을 밝힌 바 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를 첫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처로 택한 것은 하늘부터 땅까지 평화의 기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질서 정연하게 성무호국사를 참배한 대중들은 봉안의식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등 불교의식을 진행한 후 평화의불은 혜자 스님과 성무호국사 주지 기학 스님의 손을 거쳐 성무호국사 등잔으로 옮겨졌다. 조용히 타오르던 불꽃이 옮겨지는 순간 마치 보관을 쓴 관음보살과 같이 피어올랐다.

분등 의식에 이어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의 취지를 설명하는 법문이 진행됐다. 대중들은 스님의 말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혜자 스님은 "작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대중들이 안게 된다"며 "우리 마음의 평화가 나의 평화를, 나의 평화가 가정과 사회, 남북한과 세계평화까지 이어진다. 군법당에 평화의불을 밝혀 개개인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혜자 스님은 평화의초도 보급할 계획과 함께 군법당을 찾는 장병들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초를 밝히는 것을 통한 새로운 군포교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법당에 가족을 위한 기도의 상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끌 수 있다. 장병들에게 설법하고, 공양을 하는 것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장병들이 군법당에서 직접 평화의 초를 밝히며 장병들의 마음도 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화의불 봉안의식에 참여한 불자들은 군포교를 위한 초코파이와 보시금을 성무호국사에 전달했다.

공군사관학교를 대표해 나온 박찬훈 대령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전투기를 몰땐 외롭지만, 내려다 본 대한민국의 불빛을 보면 이 땅의 평화를 꼭 지켜야 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며 "오늘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신 불자님들의 원력이 우리 공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모두에게 전달돼 대한민국 평화 수호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유동에서 온 박경숙 불자는 "평소 순례마다 초코파이 보시 등 군장병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지만, 혜자 스님의 교구장 취임으로 그 동참의미가 남다르다"며 "아무쪼록 고생하는 군장병들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무호국사 주지 기학 스님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조종사와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에 평화의불이 처음으로 봉안된 것은 공군으로서도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하늘을 지킬 사관생도들이 불교를 접하고, 하늘에서부터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종교구 군법당 평화의불 봉안에 동참한 불자대중들이 성무호국사를 돌아서 나오는 길,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파랬다. 성무호국사에 산처럼 쌓인 초코파이 박스를 남기고 이들은 다시 수행정진의 길을 떠났다.

한편, 군종교구는 8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원광사 내 교구회의실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수석부교구장에 남전 스님, 차석부교구장에 지선 스님을 임명했다. 또 새로 신설된 행정팀장과 사서팀장에는 김기정 前재무팀장과 임병화 불교신문 前편집국장이 임명됐다. 군종교구는 이어 8월 20일 원광사에서 교구장 환영법회와 평화의불 봉안법회도 진행했다.

청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7학년도 생활풍수 최고지도자 과정 제15기생 모집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의 도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루십시오

풍수지리 전문가를 향한 꿈의 날개를 펴라!
최고의 교육환경과 교통의 최적지인
서울 남산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인의 길, 풍수지리사로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를 모십니다

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21세기에 요구되는 전문가로의 탄생!
21세기는 전문가 시대!
풍수지리학의 이론과 현장실습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격기본법에 의한 양택감정사, 풍수지리사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풍수지리 전문가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입학안내
■ 접수기간 _ 2017년 8월 1일 ~ 2017년 9월 4일
■ 접수처 _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과학관)
■ 문의 _ 생활풍수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연구실
02)2260-8576 / 010-3795-5088(박종희)
주임교수 _ 심재열 박사 010-5282-3388

모집요강
■ 입학자격 _ 모든 일반인 남·여대상
■ 입학정원 _ 50명 선착순 마감
■ 교육비 _ 220만원(학기당)
■ 실습비 _ 별도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수료증, 행정대학원 원장 인증서 수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풍수지리사, 양택감정사 2급,1급 자격증 수여
■ 수료 후 문화센터 및 사회교육기관 강사 추천

교육기간
■ 개강 _ 2017년 9월 5일(화요일)
■ 교육기간 _ 1년(2학기), 학기당 16주, 17회
■ 장학제도 _ 승려 30%할인, 동국대학교 동문 20%할인

원서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_ 입학지원서 1부, 사진(3x4cm)3매
■ 원서교부방법 _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_ ① 온라인 - http://gspa.dongguk.edu 접속 후 입학지원
② 홈페이지 - www.iysps.com(요산풍수지리학회)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우 04620)
■ 전화접수_전화로 인적사항 통보 후 등록금 송금
국민은행 068837-04-00667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불자 자비실천에 '지식나눔' 뜬다

불교 각 사찰 '금융' '법률' 무료 강좌 눈길

신도 전문지식 재능기부 특별 강좌로 지역민 유도 "호응 높아, 포교 도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진행된 서예작품으로 본 마음공부 무료특강 모습. 불자들의 수강 자세가 진지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 노력봉사에 이어 다양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지식나눔'이 뜨고 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8월 2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쾌한 지식나눔'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국제선센터는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공개특강과 행사들을 진행해왔으며 서남권 포교중심도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수요와 연령층을 고려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관리나 생활법률, 생활심리명상 분야를 선정해 무료공개 특강을 시작했다. 황동욱 강사가 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애 금융관리' 강좌에는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선센터는 8월 27일에는 양형우 강사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돈버는 재산관리'와 9월 10일 최주섭 강사의 '생애주기 마음길라잡이, 은퇴전환기' 주제 강의도 진행한다. 이번 특강 강사들은 모두 국제선센터 거사회 소속으로 그동안 쌓은 전문지식을 재능기부한 것이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다양한 지역사회 밀착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여 국제선센터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펴고 사회공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재능기부를 통한 지식나눔은 최근 불교계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김종화)도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보람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진행 한 바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무료강좌에서는 에이징에 대한 이해, 웰다잉, 임종준비, 임종간호와 가족돌봄 등이 진행됐다. 역시 강좌에 나선 김종화, 이도영 의사와 이경자, 원영상 교수, 이규호 변호사, 황세연 세무사 등 연구원 관계자들이 재능기부로 강좌를 진행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측은 "생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재산관리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어 마음의 준비와 법적, 사회적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로 꾸몄다. 당시 30명 정원을 초과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은 신도 조직력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지식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정학진 변호사의 법률특강, 이상원 씨의 세무특강, 윤상민 씨의 서예강좌가 진행된다. 모두 선원 신도들로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수요일에는 류선호 박사의 대인관계, 김미지 원장의 생활한방이 무료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진송, 이동호 거사의 실버요가가 역시 무료로 진행된다.

부산 대광명사(주지 목종)도 법률상담을 사보를 통해 진행 중이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상담 강좌는 신도인 박지현 변호사가 다른 불자 변호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상담을 통한 지식나눔을 실천 중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2013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설계 연금무료강좌를 연데 이어 백송대학 내 금융사고 피해예방, 노년기 장기요양 보험알기 강좌를 개설했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불자가 아니어도 이런 강좌를 통해 사찰을 찾게 되고 포교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 청각 장애 위한 상생협력 눈길

소리대장간, 강원선우회 나눔

춘천지역 대표 불자봉사단체인 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8월 9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청력솔루션 장비 및 미디어개발 전문업체인 (주)소리대장간으로부터 청력관련 검사장비와 의료기기를 기증받았다.

석범준 회장과 (주)소리대장간 장기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기관의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소리대장간 측은 강원선우회에 미세청력진단기,이명진단기 등을 비롯한 청력 검사장비와 의료기기를 전달했다. 강원선우회는 불구닥기 · 사찰 청소 등을 하고 있다.

석범준 회장은 "소리를 잘못들으면 총명함이 떨어진다고 한다. 청력은 시력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곳곳에 청력이 떨어진 이웃들이 많다. 이들을 찾아 다니며 봉사하며 자비실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기현 대표는 "이번에 기증된 장비는 미국 스텐포드대 임상실험과 세계 특허로 증명된 장비"라며 "우수한 기술을 지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쁘다. 봉사를 통해 강원선우회와 소리대장간이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 살사프로젝트 일환으로 국제선센터서 진행

이완 명상·자기연민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4대 종단과 자살예방사업을 연계해 주민밀착형 지역사회자살안전망 형성을 위한 '살사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박 2일간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친밀감 형성, 나를 깨우는 108배, 조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이완명상, 자기연민 MSC(Mindful Self-Compaassion)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집단상담을 통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 자살 고위험군 등이 지닌 심리적 자살예방 관련 심리적 상처를 위로하며 삶의 도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를 통해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서울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살사프로젝트는 '자살예방,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운동이다. 불교계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이 대표로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해 전문가 위촉까지 진행한 상태다.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은 인기리에 진행돼 추가 강좌도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불자 공무원들의 행복한 부탄 순례

13개 기관 50여 명 가사불사·사찰 참배

불자공무원들의 부탄 순례가 눈길을 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원 감사위원)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탄 성지순례를 하며 신심을 다졌다. 이번 순례에는 감사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기관에서 50여 명의 공불련 회원들이 참여해 부탄 파로, 팀푸, 푸나카 지역 사찰을 순례했다.


불자 공무원 대표가 팀푸사원 스님에 가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불자 공무원들은 부탄 사미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청퐁드랑 승가학교와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는 질루카사원, 팀푸 최초의 사원인 창캉사원을 순례했다.

팀푸 미틀사원에서 가사불사에도 동참했으며, 파로로 이동해 〈티베트사자의 서〉를 저술한 파드마삼바바가 수행했던 탁상사원도 참배했다. 탁상사원은 부탄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사찰로, 가장 신성한 사원이다. 이어 부탄 최초 사찰인 키츄 사원 참배로 순례를 마무리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부탄은 물질적인 면은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매우 높은 나라"라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만 행복지수가 낮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비정신으로 함께 나누며 공생하는 문화를 불자 공무원들이 행정 곳곳에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삶 속 명상수행 '렛고명상' 어때요?

티벳불교 수행 공동체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삶을 명상으로 삼고 고통과 번뇌를 벗해 자비심을 기르는 '렛고명상'을 진행한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Be the Master of Yourself' 주제로 진행되는 렛고명상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주간 서울 홍은동 세첸명상센터에서 진행된다.

세첸코리아는 "삶 속에서 솟아오르는 번뇌를 관해 자연스럽게 마음 수행을 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명상은 대표 용수 스님이 지도법사로 직접 지도한다. 참가비는 점심을 포함해 30만원이다.

용수 스님은 "명상은 생활 속에서 쉽게 삼매에 드는 방편"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통일’ 강조할수록 남북관계는 악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특강… 주제: ‘新베를린선언’의 과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경색국면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적인 남북대화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 9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특강서 ‘신(新)베를린선언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홍 의원은 “통일을 강조하면 ‘귀속’의 의미가 붙어 양국관계가 악화된다”며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고 일희일비 대신 철학적 입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홍익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이다. 2017 문재인정부 통일안보 특보 방미동행(6월)했으며 통일 · 외교 · 북한 전문가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요즘 정세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실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문이죠.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함 단거리고 중거리고 자유자재로 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점점 빈번해져 왔습니다. 금년 제외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한 2014년에는 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들어와서는 7월 28일 발사된 건까지 벌써 13건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은 종종 있었습니다. 이후 전략적 무기 발사도 13건 이상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안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겁박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했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바보라고.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남북 관계 4개의 선언

△7 · 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 △6 · 15공동선언 △2007 2차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굵직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7 · 4남북공동성명은 의미가 엇갈립니다. 하지만 설사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이 이후 합의의 기반토대로 작용 합니다.

남북기본합의는 1991년 12월 13일에 이뤄졌습니다. 남북군사회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것들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당시 남북한은 여전히 대치상태였고, 중국은 아직 개방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했던 상황에서 UN에 남과 북이 동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북관계에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입니다.

그리고 9년이 흐른 2000년, 6 · 15남북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양측 최고지도자 대리인들 간의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6 · 15공동선언에선 남북 간 최고지도자인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납니다. 7년 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노무현 前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으로 6 · 15공동선언을 적극 구현코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합의됩니다.

1998년도부터 2016년까지 남북회담의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1998~2003) 80회 △노무현 정부(2003~2008) 174회 △이명박 정부(2008~2013) 21회 △박근혜 정부(2013~2016) 37회입니다.

이렇게 2008년 이후 정부 간 대화가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군사회담 중심으로 이뤄져 경제회담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6 · 15공동선언 이후 장관급회담은 총 23회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없어졌습니다. 적십자회담은 총 11회로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이외에도 군사실무회담 총 39회, 경협추진위 총 10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말뿐 아니라 실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산가족 교류 역시 참여정부 대비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이산가족 중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5대 기조

정부의 5대 정책 기조 내용은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한반도의 평화 추구는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추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통일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통일 얘기를 많이 한 정권 · 지도자일수록 남북관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통일 얘기를 제일 안 하신 분이 김대중 前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진보적 그룹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대중 前 대통령은 “남과 북이 평화롭게 있고, 자유롭게 교역하면 그게 사실상 통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통일 어떻게 할지는 우리 후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셨습니다. ‘통일’이라고 말하면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먹느냐 먹히느냐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선 통일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류협력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 평화 후 통일이라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통일 표현, ‘귀속’ 따라 붙어**
> **한반도 평화에 방점 찍어야**
> **위기일수록 제재보다 대화로**
> **대립구도 풀어가는 자세 필요**

두 번째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입니다. 저의 해석은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비핵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험성을 해제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입증 가능할 정도로 제거되고 북한이 믿을만한 상태가 돼야 주한미군도 철수하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북한 역시도 자기의 체제가 확실히 안전해져야 확실하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북미 관계개선입니다.

세 번째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화협정을 말한 사람입니다. 거부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북한이랑 평화협정이면 미군 철수하란 것 아닌가?” 저는 되묻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82년부터 청나라, 왜나라 군대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35년간 한반도서 외국군대가 존재했습니다. 외국군대는 있을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입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얘기했던 것인데.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를 전체로 아우르는 협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 북한과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 ·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만 이견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경분리를 말하는 건데 이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고는 교류협력도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구상의 4대 제안

베를린 구상에서 한 4가지 대북제안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대화 재개입니다.

사실 하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주고받기 힘든 정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추석에 만나는 행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이산가족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꼭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할 필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선 금강산 관광 정상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금강산에 잘 만들어져 있으니 활용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200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북한이 험악하게 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도 힘들 것입니다. 전 세계 교류 협력의 장인 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으르렁대는 것은 손님 초대해 놓고 집안서 으르렁 대는 꼴입니다. 제대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돼야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올림픽에 함께하고 그 시기만큼은 총을 내려놓고 협력해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 및 대화의 재개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연구를 중단한 뒤가 아니라 그것을 중단 · 보류하기 위해서 빨리 대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남북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김대중 前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어려운 1970년대 냉전시대에 4개국 화해협력과 평화를 겪으며 본인의 철학을 체화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철학적 입장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사일 실험에 즉각적 대처보다는 좀 더 깊은 철학적 고민으로 평화를 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대화해야한다는 당위론적 이야기 이제는 집어치우고 결과로 보여줍시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무장은 강화되며 미국과의 대립구도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구도가 될수록 우리의 입지는 작아지고 미국과 북한 둘의 대립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정책을 내야합니다.

늘 국가가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불교는 체제 대결을 순화시키고 국내 갈등을 조화롭게 하는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기본철학에 따라 남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면 후손에게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명리 命理 육임 六壬 이춘목 교수 직강
『누구나 행복한 사주』 저자가 풀어내는 명리 육임 강의
特別講座 受講生 募集

基礎부터 實戰 專門家 水準까지! 人事, 處世術을 通察케 하는 明快한 講義!!

명리 命理 — 난해하고 광범위한 사주명리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자연과 물상법을 접목하여 누구나 쉽게 재 해설 할 수 있도록 함
천간 / 지지 / 상생, 상극 / 형 · 충 · 파 · 해 / 백호대살, 삼형살 / 합에 대하여 / 귀문살, 원진살 / 귀인 / 사주풀이 전체

육임 六壬 — 신의 경지를 능가하는 생년월일이 필요 없이 방문시간으로 길흉화복을 밝히는 이 시대에 꼭 맞는 학문, 육임!
육임개요 / 점시(占時)구하는 법 / 차객법, 명법, 방위법, 숫자법 / 식상법 / 월장가사법 / 기궁법,귀인접지법 / 12천장 / 지두법, 계획법, 방문여부, 내방자 행동 / 매매정단, 분실여부, 질병여부

이춘목교수 약력
• 동양철학박사, 고려육임학회 회장 • 라이프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한미교육교류재단 겸임교수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중앙HRD교육원 육임학, 명리학 겸임교수

■ 교육대상자 : 상담사, 철학인, 역술인, 스님, 점술가, 종교인, 관심 있는 일반인
■ 제 출 서 류 : 수강등록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 모 집 인 원 : 00명 (선착순 우선등록)
■ 교 육 기 간 : 8주 2개월 * 주 1회 (지역별 개강일정 및 관련정보 하기표 참조)
■ 수 강 료 : 명리 - 40만원 / 육임 - 40만원 (2개월 분납가능)
■ 특 전 : 본 교육수료 후 관련자격증 취득 (단, 자격증 취득 시 소정의 비용은 본인부담) / 평생교육원 협회장 수료증 수여 / 국제문화교육협회 평생회원가입등록증 발급
■ 첫 개강일 : 부산 - 2017년 8월 29~10월 24일 / 대전 - 8월 30~10월 25일 / 진주 - 8월 31~10월 26일
■ 접 수 문 의 : 평생교육원행정실 051)515-3253 / 담당실장 010-5328-7910

지역	개강일	수강요일	수강시간	교육장 주소	연 락 처
부산교육장	2017.8.29 ~2017.10.24	매주 화요일	명리 오전 10:00 ~ 12:30 / 육임 오후 2:00 ~ 5:00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온천천로 63	051-515-3253 사회복지 동행
대전교육장	2017.8.30 ~2017.10.25	매주 수요일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383-5 2층	010-7506-5080 교육원장 함경수
진주교육장	2017.8.31 ~2017.10.26	매주 목요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75번길 4 (봉곡동 2층)	010-7156-0083 교육원장 오의환

국제문화교육협회 평생교육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8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반야지혜 지니고 중생에게 나아가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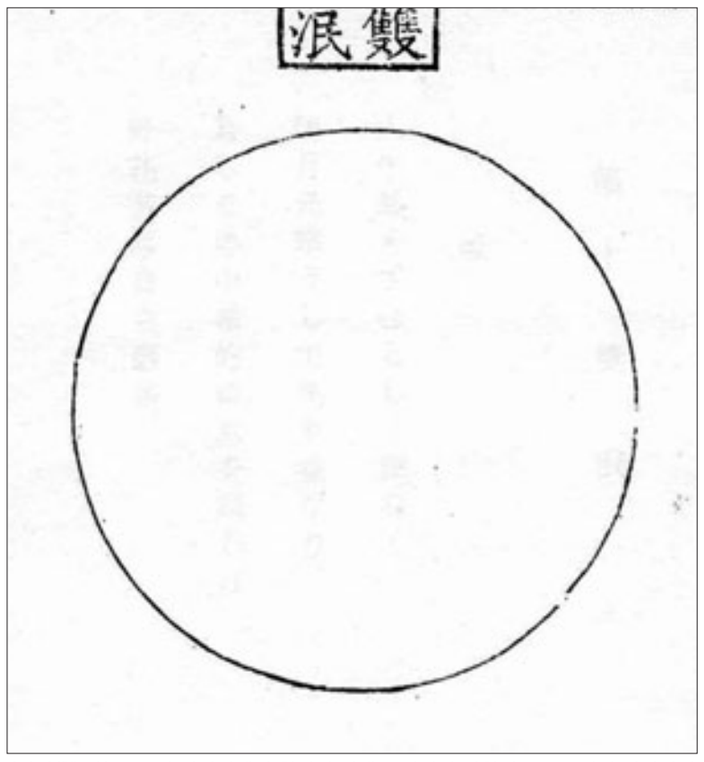
⑤ 소와 목동 이야기 ㊦

보조국사 지눌 스님(1158~1210)은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여 우리나라 조계종의 수행지침과 중흥의 맥을 마련하셨습니다. 지눌스님의 '마음 닦는 방법'을 기술한 〈수심결(修心訣)〉에는 돈오점수의 수행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돈오하느냐"는 질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보고 듣고 웃으며 말하고 화내고 기뻐하고 욕하고 그른 갖가지 것을 운전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문(門) 중에서도 '소리를 듣는 성품(聞性)'을 회광반조하게 하여 공적영지한 본성을 체험케 합니다. 중생이 세상과 소통하는 여섯 가지 문 또는 채널인 육문(六門), 즉 안(眼)-보는 것 · 이(耳)-듣는 것 · 비(鼻)-냄새맡는 것 · 설(舌)-맛보는 것 · 신(身)-몸으로 느끼는 것 · 의(意)-의식하는 것 중 어느 것을 택해 '이 뭣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섯 가지 촉(觸) 중에서도 많은 선사들이, 깨달음 체험의 지름길로, '듣는 것은 무엇인가' '듣는 것의 주인공을 찾아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능엄경〉에서도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제시합니다. 즉 소리, 청각에 집중하여 원통의 진리를 체득하는 수행법입니다. 만해 한용운도 오세암에서 '쿵'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 때 그가 읊은 오도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나이 이르는 곳 어디나 고향인데/ 그걸 아는 사람 몇몇이나 되는가
한 소리에 온 세상 크게 깨닫나니/ 눈 속에 복사꽃 붉게 나부끼네

– 만해 한용운의 오도송

자, 그럼 우여곡절 끝에 우주만물과 하나가 되는 깨달음 체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끝난 것일까요. 선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깨달은 후의 목우행(牧牛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선정과 지혜' 그리고 '자성문과 수상문'의 방법론을 상세하게 풀이하십니다. "범부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나고 죽을 때 아상을 굳게 잡고, 망상과 뒤집힌 생각 등 무명의 온갖 습관들이 오래도록 성격을 이루어, 비록 문득 깨달았어도 옛 습관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 만약 '점수' 하지 않으면 "경계에 따른 번뇌 망상이 깨닫기 전과 별다름 없을 수 있다!"고 지눌 스님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반야' 로서 공력을 키우지 않으면, "다시 윤회의 고통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선지식들의 깨달은 후의 목우행이, 바로 반야로서 비추어 살피고 또



'쌍민(雙泯)' 궁극의 반야지혜와 합일한 상태로 커다란 일원상으로 묘사된 실상반야의 모습. 〈십우도〉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입전수수〉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 출가했다' 중생구제를 위한 보살행이 십우도의 마지막 장면이다. 순천 송광사 십우도 벽화.

보명본 마지막 '일원상' 그려
대승불교 여래장 사상 표현해
곽암본, '입전수수' 보살행 강조
깨닫고 실천함이 곧 수행 완성

살펴서 궁극의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눌스님의 호가 '목우자(牧牛子)'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보명본과 곽암본의 차이는?

보명본 〈목우도〉는 제1장에서 제8장까지, 총 10장 중 제8장까지 장면에 소가 등장합니다. 무명업장을 상징하는 소를 반야 지혜로 정화시켜 나가는 여정이 참으로 오래 걸리고, 그것이 여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납고 방자하게 으르렁거리며 계곡과 산길로 치달으며 아름다운 싹을 침범하며 아직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제1장 미목)에서→ 고삐로 코를 뚫어 잡아매어 처음으로 말을 듣게 하고(제2장 초조) → 기존의 달리고 달아남이 쉬어지고 조복하여 수행을 점점 받아들이는 단계(제3장 수제)에서→ 오랜 기간이 흘러 공력이 깊어져 드디어 밖으로 치닫던 미친 심력이 부드럽게 다스려지고, 지혜가 생활 중에 더 많이 작용하는 반환점(제4장 회수)에 오게 되며, 이 때부터 제9장 독조, 둥근 지혜의 달이 허공에 드러나는 단계까지 소는 동자와 여정을 함께 합니다. 이제는 내버려 두고 "목동이 굳이 끌지 않더라"도 저절로 길들여 다스려지게 되고(제5장 훈복) 어떤 장애나 거리낌도 없어 동자는 나무 그늘에서 한가하게 피리를 붑니다.(제6장 무애)

그 다음 단계는 동자는 소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안 써도 될 만큼 편안해 집니다.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졸고 있네요.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잡니다.(제 7장 임운)

다음 장면은 동자와 소가 속세를 벗어나 허공 속에 있습니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달이 드러나니 구름이 사라진다." 검은 소는 흰 소로 변하였고, 꼬리 끝에만 검은 색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모든 무명업장이 사라지고 지혜의 달이 항상 있는 단계(제 8장 상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소가 화면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번뇌장 및 소지장을 모두 타파한 셈이군요. 이제 동자는 홀로 밝습니다.(제9장 독조) 마지막 장면에서는 동자마저 사라지고 일원상만 있습니다.〈사진1〉

"사람과 소가 보이지 않고 자취가 묘연하니/ 밝은 달빛이 차니 만상이 공空하다/ 누가 만일 그 가운데 진실한 뜻 묻는다면/ 들꽃과 풀꽃 절로 총총하다 하리라."

이렇듯 보명본은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10장에서 비로소 일원상이 나타납니다. 일원상은 지혜의 완성 또는 대열반과의 영원한 합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곽암본은 모든 장면이 애초부터 일원상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크나큰 지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르고 있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어도 그 속에 있다는, 모든 만물 속에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대승불교의 여래장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애초에 그림에 반영됨으로써, 우리는 크나큰 공(空)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십우도를 보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버겁게 느껴지던 무명업장도 별 일 아닌 듯 작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공의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안심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대우주의 바탕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낱 그림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곽암본의 위대함은 이러한 견지를 원상 바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소의 모습이 곽암본에는 단지 네 장면(제3장 견우, 제4장 득우, 제5장 목우, 제6장 기우귀가)에만 나옵니다. 반면, 보명본에서는 제1장에서 제8장까지 소는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목우, 즉 지혜를 키워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것이 그림의 대부분으로 80%를 차지합니다. 곽암본에서는 단지 네 장면에서만 나타나고 기우귀가(제6장)한 뒤에는 바로 사라집니다. 제7장 망우존인에서는 동자와 지혜의 달만 있습니다.

여래장과 보살행, 수행의 완성

보명본과 곽암본과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보명본은 일원상이 활짝 나타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곽암본은 일원상〈제8장 인우구망〉이 나타난 다음에, 두 장면이 더 있습니다. 〈제9장 반본환원〉과 〈제10장 입전수수〉입니다. 깨달음만 여여하게 드러난 이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깨달음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생에 몸을 갖고 있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의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반야 지혜가 함께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예전의 산과 물이 아닌 것입니다. 반야지혜가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대망의 마지막 장면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입전수수'는 다시 세간으로, 이제는 (출가할 때와는 달리) '반야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 온갖 겉치레와 상(相)을 다 버린 채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제9장 반본환원'의 여여(如如)한 자연의 모습은 여래장의 실천적 모습인 '실상반야'를, 〈제10장 입전수수〉의 속세로 향하는 스님(또는 포대화상)의 모습은 '보살행'을 상징합니다. "가슴을 헤치고 맨발로 거리에서니/ 흙을 바르고 재투성이지만 얼굴 가득 웃음/ 굳이 신선의 비결 쓰지 않아도/ 바로 가르쳐 마른 나무에 꽃 피게 한다.(입전수수入鄽垂水: 속세로 들어가다.)"

곽암본 십우도에서는, 수행의 완성인 마지막 장면으로 설정한 것이, 보명본에서처럼 반야열반이 아니라, 바로 '보살행'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토막 불교상식

지눌 스님이 정의한 '돈오'와 '점수'란?

"돈오란, 범부가 미혹하여 사대(지수화풍)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아서, 자성이 참 법신인줄 모르고 자기 영지(靈知)가 참 부처인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대로 치닫다가, 홀연히 선지식의 가르침에 길로 접어들어 한 생각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그 성품자리는 본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이며 스스로 구족하여 즉 모든 부처와 함께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안다. 고로 일컬어 돈오라고 한다."

"점수란,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름없음을 깨달았으나, 오랜 옛적부터 습기(習氣)를 단박에 없앨 수가 없기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야 한다. 점차 길들이고 공력을 이루어, 성스러운 바탕을 길게 키워나가 오래도록 기려서 성인이 된 것이므로, 일컬어 점수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조건 갖춤이 다를 바 없으나, 그 힘이 미충하여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지눌 〈수심결〉서 발췌 · 요약

세계불교지도자 경전6차 결집 장소에 다시금 집결하다

2600년의 염원이 드디어 성취되다

세계불교 법왕청 과 세계불교도들의 법왕이신 우꾸마라 사야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불교지도자 정상회의에 불교 지도자이신 법하를 초청하였습니다

불교국 각 나라 승왕 및 연방승가회 회장, 세계불교지도자 총 결집 정상회의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대승과 소승(트라와다) 불교가 하나가 되어 오늘의 불교 현실을 바라보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한구석에서 안주하는 일부 지도자들로부터 탈피하여 지구촌 구석구석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사의 해가 어둠을 뚫고 솟아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법왕청 중앙정부의 관리, 운영, 조직에 착수하였으며 미얀마에 법왕궁을 두고 한국에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왕궁 중앙정부 설립 또한 불교수호협회 관리하에 불교수호협회 회장께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환희심이 가득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루시는 경이로운 기적을 봅니다. 모든 준비는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불교수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미얀마 까바에 동굴사원 (6차 결집 장소)
■ 한국에서는 10월 11일 출발합니다.
■ 행사 및 성지순례 220만원
■ 자세한 일정은 문의하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국가
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일본, 대만, 중국, 몽골
■ 주최 : 사단법인세계불교 법왕청 ■ 주관 : 미얀마 세계불교수호협회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층) 세계불교 법왕청 사무국 / 문의처 011-229-6061. 010-7487-7090. 010-4467-9600

불자 지성들, 전환기 포교 전략 논하다

교불련, 8월 17~18일 '2017교수불자대회' 열어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기조 강연과 6개 분과 발표로 나눠 진행된 교수불자대회에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별 전환기 포교 전략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의 전환기 전략을 제안한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2004년 포교 10개년 계획 이후 종단 차원의 중장기 포교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세울 것을 충고했다.

또한 종단 정체성 성찰을 통해 조계종만의 불교 신행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공간을 전국에 설립할 것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교문화를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곳이지 조계종만의 차별화된 불교 문화나 신행을 알리는 공간은 아니다"며 "조계종을 알리는 공간이자 포교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성월 중부대 교수는 △포교연구소 설립 · 운영 △IT 기반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태고종의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포교연구소를 설립해 포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전법활동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관 · 포교연구실 설립 등
주요종단별 포교 전략 제시
4차 산업 시대 전법 방안도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논의

이어 "스마트폰 등 온오프라인 포교 방법의 개발과 운용에 대해서도 포교연구소가 전문 인력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각종에 대해서는 '진각 100년 교화 전략'이라는 구체적 실천 방향이 제안됐다. 진각종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성제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각종이 신행 문턱을 낮추고 교학 정비 · 스승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진각교전〉을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로 편집을 바꿀 것을 비롯해 의자 설치 보편화, 불사 시간 조정 등이 제안됐다.

성제 정사는 "'희사하고 염송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수행지침만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교법이나 수행체계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리적인 연구를 통한 이론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전법 방향도 제시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법방안 고찰'을 통해 빅데이터 · SNS 전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법 · 설법 주체자는 빅데이터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직간접적 대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설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TV스크린 시대, 시청각 자료를 넘어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무한정 자료 활용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전법 · 설법자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을 토의했으며, 내년 교불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출판사업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 8월 14일 공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던 불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기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화성 용주사는 장조(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隆陵)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 쓰였던 곳으로, 제사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 역할을 했다.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해 4월 15일 상량, 9월 29일에 불상이 봉안되었는데, 왕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등 건립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한 관영공사였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長臺石 基壇)과 원형주좌(圓形柱座)를 둔 사각의 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 시공에 정성을 기울여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잘 보여준다. 다포 양식의 공포와 초각(草刻) 수법은 창건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속가능 발전 위한 불교의 역할은

불교평론, 8월 25일 학술심포지엄

현대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계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교적 지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문명의 사멸과 지속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후 장성우(동국대)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 이승숙(미르문화원 대표)의 '지속가능한 식량문제 해결의 길' · 이철헌(동국대)의 '환경위기와 생태적 사회를 위한 불교적 지혜' · 유상호(한양대)의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적 지혜' · 이찬수(서울대)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폭력과 평화구축의 길' · 박병기(교원대)의 '교육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한 모색'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로 해석한 기신론 강의 열린다

이중표 교수 9월부터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대승기신론〉을 해석하는 강좌가 열린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9월부터 '초기불교로 풀어본 알기 쉬운 〈대승기신론〉' 강좌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법련사에서 9월 9일~12월 23일 매월 2 · 4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에서는 광주불교교육원에서 9월 14일~12월 14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구례에서는 구례읍장애인복지관에서 9월 16일~12월 30일 매월 1 · 3 · 5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

이 교수는 "'모든 것은 함께 연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아닌 것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승기신론'의 취지를 초기불교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010-3600-7890, 광주 010-4783-6673, 구례 010-9052-8179

대승 경전에 담긴 식물, 무엇이 있나

민태영 불교식물연구원장 '경전 식물 연구' 박사 논문

식물, 대승을 비유적 표현
'불교식물학' 정립 계기를

대승 경전에 나타난 식물들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됐다.

민태영 한국불교식물연구원장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로 동국대 대학원 한국불교융합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민 원장은 논문에서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과 불교사서(史書)인 〈삼국유사〉에 나타난 식물들을 분석했다.

민 원장에 따르면 〈화엄경〉에는 97회 35종, 〈법화경〉에는 62회 27종, 〈열반경〉에는 210회 79종, 〈삼국유사〉에는 119회 56종의 식물이 수록돼 있었다. 연구 대상에 수록된 총 식물 종수는 122종이었다.

이를 통해 "대승 경전과 사서에 있어서 식물은 인간을 대변한 혹은 투영된 사유와 깨달음의 존재자로 그려지고 있었다"고 민 원장은 주장했다.

실제, 〈화엄경〉에서 연꽃은 '붓다'와 '법' 자체였으며, 보리수 또한 형상화된 연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법화경〉에서 연꽃은 경의 명칭으로서 그 수승함을 천명하고 있다.

〈열반경〉에서는 수행을 통한 불성의 개발과 정토의 구현을 설하면서 정토의 구현은 연꽃으로 표현된 '처염상정'과 '화과동시'로 드러났다. 사라수는 열반사덕을 가능케 하는 식물로서 종취(宗趣) 자체이면서 그 대상이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연꽃과 대나무를 통해 그들의 이상과 현실을 대변한다. 연꽃은 유심정토 자체로서, 대나무는 신라인들의 기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대승의 식물관 연구는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안이며 미래 지향적인 식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며 "불교의 식물관은 상호 의존과 평등의 실천자인 대승의 보살로서 인류의 미래 환경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불교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친자연적이고 평등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경전에 수록된 식물의 역할 구명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식물을 통해 교리를 쉽게 해석하는 분야로서의 '불교식물학(Buddhist Botany)'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茶문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아시아차문화硏, 9월부터 차 강좌 진행

한국의 차문화와 제작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9월부터 차문화 강좌를 개설 · 운영한다. 강의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직강한다.

강좌는 한국의 차 문화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차 문화사 이해'를 비롯해 시대별 차 전문 서적을 통하여 차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 다서 읽기-다신전', 차 만들기의 원리 및 발달사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차 만들기의 이해' 등이 개설된다.

차 만들기 원리 강좌는 9월 7일, 한국차 문화사 이해와 다신전 강좌는 9월 8일 각각 개강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월드오피스텔 705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다. 이번 강의에 대해 박동춘 소장은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수한 차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2)504-6162 신성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이기봉 스님	월	오후 1시 ~ 7시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현성 스님	수	오후 1시 ~ 7시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최원허 스님	목	오후 1시 ~ 7시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조인각 스님	금	오후 1시 ~ 7시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심만춘 스님	화	오후 1시 ~ 4시	*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8월 14일 ~ 8월 25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닫힌 마음 열린 마음

인생은 짧다, 풀 끝 맺힌 이슬 같다. 스무 살까지는 세월이 더디 가지만 마흔을 넘기면 세월은 날아서 간다. 육체는 나날이 늙어 절반이 병(病)이요, 절반이 어둠이다.

대화 나눌 벗은 갈수록 줄고 삶의 언저리엔 뱀의 허물같은 외로움이 빈 집의 거미줄처럼 널려있다. 금슬 좋던 부부사이에도 쉰내를 풍기며, 보고 듣는 일상이 힘에 겹다. 품으로 낳아 기른 자식들도 주면 좋아하고 현찰 거래가 줄면 멀어지는 세상이다. 정신세계를 밝혀준다는 종교계의 신앙에도 돈이 신(神)이 된지 오래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마른 손아귀에 잡히는 것은 알곡 없는 검불 떼기의 공허로움이 마른버짐처럼 번질 뿐이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팔자타령으로 위안 삼으려 해도 현실은 톡 쏘는 사이다 맛처럼 대충 눈감아 주거나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있으면 모이고 없으면 떠난다. 줄때는 엄지척이요 필요할 때는 손사래 치며 멀어져 간다.

장관 집 개(犬)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려오지만 정작 장관이 죽으면 문상객 대신 찬바람이 몰아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혼자 있을 때는 홀수의 외로움이 지겨워 짝수를 희망하지만 짝수가 되고 나면 벽과 틈이 생겨 삭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터이다.

대화는 날이 갈수록 단절되고 이해의 폭은 세월의 톱니바퀴처럼 지겹도록 졸아든다. 불만과 권태는 시계추처럼 멈추질 않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고 싶은 충돌은 어둠만큼 비례하여 삼시세끼처럼 일어난다.

생각을 바꾸고 입장 바꿔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부처님처럼 받아들이려 해도 싸가지 없고 싹수 노란 절망의 늪은 용서를 멀리한다.

옷깃 한번 스친 것도 인연이라지만 차라리 생명의 옷까지 벗고 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생활의 언어로 삼아 칭찬의 부드러운 말 보시(布施)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라지만 상대자로부터 듣고 싶을 뿐 닫혀 있는 마음만큼 입도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리더(Leader)요 지도자요, 사람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집에서는 쪼다에다 머저리, 말이 없는 등신에다 자기만 챙기는 병신이다. 생각의 윤회(輪廻)를 줄여 보살심으로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입장 바꿔 생각하려해도 목소리와 몸짓에서 구린내 풍겨 오는 것은 어찌하랴!

인생은 짧다. 풀 끝에 맺힌 이슬 같다. 짧디 짧은 인생길에 반려자가 있어 행복하다. 팍팍하고 고단한 길도 둘이 함께 걸으면 힘이 된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은 자식 기르는 솔솔한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기쁨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찬물을 마시고 살아도 가족이 힘이요 행복이요 삶의 전부인 것이다. 부부끼리 토라지고 등 돌리고 싸움이 길어질 수 있으나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싱겁게 화해하고 하나가된다.

불교의 〈옥야경〉에서 만나는 일곱 가지 아내처럼 마음이 열리면 부모 같고 스승 같고 오누이 같고 친구 같은 반려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에는 원수처럼 종처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반려자를 가볍게 멀리하는 법이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는 가정에 있다
배우자는 부처님, 자녀는 나한님이다

아내와 남편은 같은 사람인데 마음의 변화에 의해 7가지 아내 7가지 남편으로 분별하는 분별심을 경계할 일이다. 부부인연 자식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소중한 인연으로 천륜(天倫)이라 하지 않던가. 말 한마디 행동 한 점에도 마음을 담아 천 번이라도 용서하고 만 번이라도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자비로 살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배(三寶)는 사찰의 기도도량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있다. 아내와 남편은 움직이는 부처님이요 아이들은 장난을 즐기는 나한(羅漢)들이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진리를 상징하는 법(法)이요 가정의 화해(和解)와 바른 교육은 화합(和合)을 상징하는 승(僧)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숨어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세상은 빛과 어둠이 반반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부처로, 〈화엄경〉의 교훈처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一切唯心造)됨을 두고두고 잊지 말 일이다.

시대정신 제시한 禪, 새 조류 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선수행이 시작된 것은 신라 말 구산선문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원효, 의상의 시대에서 100여 년이 지난 이후 중국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최초의 선을 전래한 사람이 도의국사(道義國師)다. 도의국사는 현재 조계종 종조(宗祖)로 추앙받는 스님으로 784년 선덕왕 5년에 당나라 사신을 따라 유학을 가서 오대산으로 들어갔다가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 계단에서 비구계를 받는다.

그리고 조계산으로 가서 육조 혜능대사의 영정을 참배한 후 강서(江西)에 있는 홍주(洪州) 개원사를 찾아가 서당지장(西堂智藏)을 친견하고 스승으로 받들어 가르침을 받고 서당의 법을 전해 받았다.

이때 서당이 도의라는 호를 지어주면서 "그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법을 전해 주랴."고 말했다 한다. 〈경덕전등록〉에 수록된 내용에 지장의 제자 4명 가운데 계림도의선사(鷄林道義禪師)라는 이름이 나온다. 도의는 다시 백장회해(百丈懷海)를 찾아갔다. 법을 물으며 대화를 나눈 후 백장도 "강서의 법이 모두 동국(東國)의 스님 것이구나"하고 감탄을 하였다고 한다.

도의 국사는 821년에 신라도 귀국했다. 그가 선법을 펴려했으나 당시 신라 조정이 부패하고 의교수행(依敎修行)의 관습에 젖어 있던 불교계가 불입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의 선의 기치를 마설(魔說)이라고 비방하며 배척하는 등의 일이 나타나자 법을 펼 시절인연이 미숙함을 알고 설악산 진전사(陳田寺)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한다.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다. 그러다가 제자 염거(廉居)에게 남종선을 전수하고 입적(入寂)하고 만다. 법을 전해 받은 염거도 제대로 선법을 펴지 못했다. 제자 보조체징(普照體澄)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입적하였다.

체징(體澄: 804~880)은 옹진(충남 공주)출신으로 어릴 때 출가해 도의의 법을 전해 받은 염거(廉居)를 찾아가 그의 법을 이은 도의의 손제자다. 체징도 당나라에 들어가 여러 선지식들을 참방하고 3년을 있다 840년에 귀국한 스님이다. 마침 체징이 860년 경 헌안왕의 권유로 전남 장성군 유치면 가지산 보림사로 이주를 하게 된다. 그는 이곳에서 김경언 등 신라 중앙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 산문을 연다. 이리하여 가지산문이 개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체징이 개산하면서 도의를 제1조로 하고 염거를 2조로 자신을 3조로 하여 남종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가지산문의 개창자를 도의로 보는 것이다. 이후 보림사 가지산문의 선맥이 고려말까지 이어져서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 1206~1289)선사도 가지산문에 속한다.

이어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차례로 개창되면서 마지막으로 개창된 긍양(兢讓)의 희양산문(曦陽山門)에 이르기까지 115년이 걸리면서 선법 수행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신라는 하대(809~935)에 이르면 왕위 쟁탈전과 사치, 부패 등으로 골품제가 와해되면서 통치력이 약화되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등 왕조의 붕괴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났다.

불교계 역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왕실과 중앙 귀족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가 새로운 산문의 수행불교가 일어남에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된다. 새로운 사상에 목말라하던 신라의 스님들은, 선진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선종을 배우기 위하여 당나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배움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는, 선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선사들은 지방의 산간 오지에 선문을 개창함으로써 지방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의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드높은 수도정신과 더불어, 선종 본래의 사원노동을 중시하고, 불성(佛性)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신분의 고하를 묻지 않는 선사들의 태도는 일반 민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산선문은, 나말여초라는 격변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의 새로운 '시대정신' 으로 자리 매김 하면서 선법을 정착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모든 것 품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⑦ 보살의 이타행

饒益他品第十八

世間眾生爲己樂故。於生死中身心疲勞。菩薩心得休息悲心作饒益。他生死中除對治法更無有樂。菩薩除利益他更無有樂。菩薩得作利他歡喜樂。知利他者卽是自利。捨自己利愛利他樂。知利己樂卽是利他樂。知利他樂卽是利己樂。知利他樂時卽自己樂故。人有上中下。愚人者見他得樂心生苦惱。中人者己自苦時知苦。上人者見他樂時心生快樂。見他苦時如自己苦。菩薩四攝法中與他同利。云何同利。他苦則苦他樂則樂。是名同利。悲心平等無有他想。菩薩與眾生同苦同樂。菩薩自己身特生苦惱。何以故。不能救眾生苦故。不觀過去不觀未來。隨眾生意作滅苦對治。菩薩自意亦如他意。世間眾生與他利樂還望返報。菩薩與他利樂不望其報。菩薩雖悲心平等愛一切眾生。然於怨憎中倍與利樂。於怨憎邊與利樂時心中歡喜。如捨身命時歡喜者名爲平等。若不如是名不平等。於怨憎中倍與利樂者名稱悲心所作。

번역 | 요익타품 제18

세상의 중생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 생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피로하지만, 보살은 마음에 휴식을 얻어 자비심으로 두루 이익케 합니다. 생사 가운데 대치하는 법을 버리면 즐거움이 없지만, 보살은 타인의 이익을 버리면 즐거울 게 없습니다. 보살은 이타행으로 환희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임을 알아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이타락(利他樂)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이 곧 이타심의 즐거움임을 알고, 이타락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즐거움임을 아는 것은 이타심으로 즐거울 때 곧 자신도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상, 중, 하가 있거니와 어리석은 이는 타인이 즐거우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중인(中人)은 자신이 괴로울 때에야 괴로운 줄 알고, 상인(上人)은 남이 즐거울 때 마음에 쾌락이 생기고 남이 괴로울 때 자신도 괴롭습니다. 보살의 사섭법(四攝法) 가운데는 남에게 동리(同利) 베풂이 있는데, 무엇이 동리(同利)인가 하면, 타인이 괴로우면 곧 괴롭고, 타인이 즐거우면 곧 즐거운 것을 바로 동리(同利)라고 합니다. 자비와 평등으로 남이라는 생각이 없기에 보살은 중생과 더불어 괴롭고 함께 즐겁습니다. 보살 자신에게 특별한 괴로움이 생김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지 못해서 그렇거니와 과거도 미래도 살피지 않으며 중생의 뜻에 따라 괴로움을 없애도록 대치합니다. 보살은 자기 뜻을 남의 뜻으로 여기는데, 세상의 중생은 남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면 도리어 보답을 바랍니다. 보살은 타인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보살은 오직 자비심과 평등으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기에 원망하고 미워해도 배나 이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원망과 미움의 경계에서 이익과 즐거움을 줄 때 심중에 기쁘고 몸과 목숨을 버리듯 하는 것을 평등이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으면 불평등이며 원망과 미움 가운데 배나 이익과 즐거움을 주면 자비심 짓는다고 합니다.

해설 | 새벽안개 자욱하게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하나가 거리를 다 비추는 법이고, 캄캄한 중생의 마음에 지혜 한 줄기 비취면 삼계를 훌쩍 벗어나는 법이다. 원망과 미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이 원망하고 미워하며 아귀다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헐떡이는 그 마음을 자비로 돌려세울 수 있다면 그가 곧 보살마하살이다. 염불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이다.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불보살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임에도 우리는 그 염불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갈구하지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기도란 평등심으로 돌리는 일이자 자비심 짓는 마음 바탕을 닦는 일임을 자꾸 되새겨야만 하겠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련, 관욕(기초부터 시작)
◇원서교부 : 2017년 7월 15일 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자비명상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개강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혜화관 3층 미래융합세미나실

힐링멘토 마가스님의 (사)자비명상 교육과정

❶ 심리 명상 자격교육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 / 조계종 인증점수 교육)
9. 4(월) 14시 ~ 16시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35만원

❷ 마인드힐링지도사 2급
9. 7(목) 18:30 ~ 21:30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20주 60만원

❸ 차 명상 지도사
9. 4(월) 17:30 ~ 20:00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45만원

❹ 인성교육 자격교육과정
어린이 인성교육지도사
9. 7(목) 14 ~ 17시 개강
동국대 평생교육원 15주 45만원

❺ 전문 심화교육
마인드힐링 1급 과목
한 과목 35만원 / 4 과목 100만원

[교과과정]
■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과정
9. 7(목) 16시 ~ 18시 개강 12주
■ 깨달음의 심리학 – 문진건 박사
9. 7(목) 19시 ~ 21시 개강 12주

[수행과정]
■ 마가스님의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
매일수행. 수행일지 & 모바일
마가스님 1:1 면담
■ 집단상담
굴암사 1박 2일(3회)

동국대 평생교육원 접수 문의 ☎ 02-2260-3728
자비명상 문의 02-2682-0260 / sms,sns 문의 010-4804-4108

護國성지 표충사, 산문 세워 위상 높이다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 봉행

신라 무열왕 때 원효대사 세워
창건 역사상 최초로 산문 준공
종정 진제 스님 친필 휘호 현판
"새 시대 호국정신 이어갈 것"



표충사는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사진은 내빈들의 테이프 컷팅 모습.

원효대사와 사명대사의 호국 숨결이 살아있는 재약산 표충사의 산문이 열렸다. 표충사 산문은 창건 이래 처음 준공됐다.

밀양 표충사는 8월 17일 산문 준공식 및 현판 제막식을 열고 국운융창 기원함으로써 호국성지로 위상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및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법산 스님, 주지 법기 스님, 밀양불교연합회 회장 태우 스님이 참석했다. 아울러 박영근 문화재청장, 박일호 밀양시장, 황인구 밀양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찾아 축하했다.

표충사는 신라 무열왕(654년) 때 원효대사가 삼국통일을 발원하며 창건한 사찰로,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가 호국 불교를 드높인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산문 준공은 창건 후 처음으로, 호국불교 본산의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유산을 간직한 가람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문 준공식은 기도축원으로 시작해 사물놀이, 선비춤, 명상품, 법고 타고식으로 진행됐다. 현판 제막천은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흰색으로 덮였다. 붉은색은 용기와 정열을 뜻하며 밀양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표현했다. 노란색은 영광과 부귀를 담아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또한 초록색은 신행과 불멸을 상징하며 파랑색은 차분함으로 참석한 모든 이의 건강을 발원하는 의미다. 마지막 흰색은 평화와 행복 그리고 광명을 뜻하며 호국영령과 유주무주 영가의 평안을 기원하는 색이다.

제막천이 걷어지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쓴 호국성지 표충사(護國聖地 表忠寺)와 뒷면에는 재악산문(載嶽山門) 휘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테이프 커팅, 주지 법기 스님의 인사말씀 및 진제 스님의 법문,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격려사와 내빈들의 축사가 진행됐다. 종정 진제 스님은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중이 함께 힘을 모은 역사적인 곳"이라며 "일본 적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이룬 사명대사의 호국 법력을 이어받고 산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그 정신을 마음 깊이 기리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표충사는 원효대사가 삼국 통일을 발원하며 대통합을 기원했고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가 호국 불교를 드높인 곳"이라며 "이제 새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호국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축하했다.

주지 법기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활동하는 표충사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충사는 이날 산문 준공에 힘써준 공로를 인정해 박일호 밀양시장, 이병희 경상남도 도의원, 최병기 부북면사무소 면장, 이근용 화성문화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표충사 산문은 2015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형버스 교행을 위한 산문 건립을 재추진해 지난 5월 31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표충사는 향후 산문 단청 불사 도 계획 중이다.

하성미 기자

김해 길상사, 孝心으로 부처님 사랑 전해

8월 10일 지역 경로당 16곳 방문해 건강 발원


김해 길상사는 8월 10일 김해에 위치한 지역 경로당 16곳을 방문했다.

김해 길상사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길상사(주지 혜수)는 8월 10일 김해에 위치한 지역 경로당 16곳을 방문했다. 경로당 방문 봉사에는 길상사 봉사단체 성현덕회 회원 및 신도 50여명이 참여했다.

경로당 방문 봉사는 지역 어르신에게 간식 후원 및 의료 봉사를 행함으로써 건강을 기원하고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업이다. 길상사 주지 혜수 스님은 베풂과 나눔으로 보시 바라밀을 몸으로 익히고 배우게 한다는 목표로 외국인 김장 나누기, 요양원 방문, 쌀 나눔 등 다채로운 봉사를 진행 중이다.

혜수 스님은 "요즘은 경로사상을 잊어버리고 찾아보기 힘들다"며 "잊어버린 효심을 실천을 통해 찾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시작했다. 주는 것으로 참된 행복을 알고 체험하길 바란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박예순(55) 성현덕회장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 생각하고 방문하고 있다. 한해는 방문이 늦은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며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저희들의 방문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백련사,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 법회

시민과 불자 위한 쉼터 발원


백련사는 8월 17일 경내 앞마당에서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식'을 봉행했다.

부산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백련사에 해수관음보살이 자리 잡았다.

부산 용호동 백련사(주지 대방)는 8월 17일 경내 앞마당에서 '해수관음보살 조성 점안식'을 봉행했다. 백련사 해수관음보살은 5년 전부터 기도를 위해 찾는 신도들의 염원이 모여 조성됐다.

백련사는 해수관음보살과 함께 약사여래보살도 함께 경내에 이운하고 이를 축하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지 대방 스님과 신도 100여명은 점안을 축하하며 기도 도량으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대방 스님은 "백련사 신도들의 발원으로 모신 해수관음보살님으로 더욱 환희심이 난다"며 "백련사는 앞에 부산 바다가 보이는 명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공원 부지로 개발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2020년이 되면 도량을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때를 기다리며 시민들과 불자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세계평화 기원하는 생명 존중 대법회

쌍계사, 9월 7일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


쌍계총림 쌍계사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9월 7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해 방생 자료사진

세계 평화 · 남북통일 ·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자비방생 대법회가 열린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원정)가 세계평화 · 남북통일 ·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제27회 자비방생 대법회'를 9월 7일 오전 9시 30분 고성 당항포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쌍계사가 주최하며 제13교구 본말사 암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에는 쌍계사 방장 고산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원정 스님과 제13교구 본말사암 소속 54개 사찰 및 신도 2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법요식 개식 선언에 이어 헌화, 대회사, 고산 대종사의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 방장 고산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은 방생 의식에 참여하고 생명존중의 참된 뜻을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한다.

쌍계사는 "진정한 방생이란 죽음에 직면한 물고기를 살려줄 뿐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자신의 것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발원하는 방생 대법회에 동참해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쌍계사는 1992년부터 매년 하안거 해제 직후 자비방생 대법회를 봉행한다.

방생법회는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이 중생교화를 위해 자비심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평화와 민족 화합은 자비심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전해 정토를 구현하고, 대중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 취지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석해 경남을 대표하는 방생법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생법회가 열리는 고성 당항포는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 의미가 깊다.

쌍계사는 "과거 총칼을 겨누었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법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참석한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나눔, 함께 걸으며 생명희망 심어요!

부산생명나눔, 9월 9일 걷기대회 개최

장기기증 및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걷기 대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9월 9일 오후 2시 부산 시민공원(다솜관)에서 '제9회 희망세상 만들기 생명나눔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생명나눔걷기 대회 참가자들은 3㎞를 환우들과 함께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기 및 조혈모 세포 기부 홍보 활동을 펼친다. 부산 생명나눔은 걷기코스를 3군데로 나누고 퀴즈 문제를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환우 및 생명나눔실천이사 스님 및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생명나눔은 매년 환우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있다. 걷기대회와 아울러 풍선 아트, 무료차 시음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한다. 걷기대회 후에는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추첨을 통해 사은품도 전달한다.

하성미 기자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21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동국대**

"생명 · 평화 가치 세상에 알려지길"

만해대상 시상식… 하얀헬멧 · 제인 구달 등 수상

11~14일 인제서 만해축전
문학 · 예술 문화행사 '풍성'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며, 근현대 선지식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생명 평화와 문예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제21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축전 명예대회장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순선 인제군수, 주호영, 황영철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지난 3년간 8만명을 구조한 구호 단체 '하얀 헬멧', 만해실천대상은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만해문예대상은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와 클레어 유(한국명 임정빈) 미국 UC 버클리 한국학센터 상임 고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 수상 단체 '하얀 헬멧'의 대표 라이드 알살레는 "우리는 총 대신 '들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어느 편이건 상관없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어디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기에 우리 모두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갈구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제인 구달 박사는 "인간은 동물들과의 향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며 "자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며, 나 자신 또한 끊임없이 세계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최동호 명예교수는 "만해의 시를 읽으며 문학을 시작했다. 더 높은 성취를 향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클레어 유 상임고문은 "한글과 한국어로 세계를 연결해왔다. 문화와 이념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수현사, 혁신도시 포교거점으로 '우뚝'

8월 13일 금산사 전주포교당 수현사 삼존불 점안

문수 · 보현 이름 딴 수현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문화공연 다목적 법당 등
새 포교도량 위용 갖춰



금산사는 전주혁신도시에 세워진 포교당 수현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가 지역불교활성화와 포교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건립한 수현사에 삼존불이 점안됐다.

금산사(주지 성우)는 8월 13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수현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의미를 담아 수현사로 이름 붙여진 전주혁신도시 포교당은 대지 2,009㎡(약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10㎡(약 1500평) 규모로 지어졌다. 토지매입대금 약 12억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전주 신도심의 포교전략 거점으로 활용될 수현사는 4층 큰법당과 지장전, 교육관, 생활관, 강의실, 식당,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1층에는 금산사 복지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다. 특히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삼존불이 봉안된 큰법당은 3층과 4층이 합쳐진 구조로 350석의 좌석을 갖춰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법당으로 쓰일 예정이다.

큰법당에서 열린 점안식은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증명법사로 불교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점안법회에는 월주 스님,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화평 스님, 덕산 스님 등 17교구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대행, 박성일 완주군수, 서울 영화사와 금산사를 비롯한 지역불자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그동안 수현사 건립불사를 위해 애쓴 원행 스님과 금산사 사부대중에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32상 80종호를 갖춘 불보살은 불자들의 원력으로 나투게 됐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수현사 도량에서 지혜를 얻고 뛰어난 위신력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며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낙후된 전북지역 불교를 활성화 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수현사 옥상에 전통방식의 법당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청정한 눈을 뜨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수현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사는 수현사 내부시설을 갖춘 후 별도의 준공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90여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을 준비중이며, 이들 기관의 직원 수만 4700여 명에 달한다. 주변에 대규모 상가와 아파트가 이미 건립돼 입주를 마친 상태다. 전주혁신도시의 전체 인구수는 약 3만 명 정도로 전망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더위 날리는 선운사 특별템플스테이

방학 · 휴가철 맞아 기획… 8월 25일 3차 예정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내안의 나에게'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자연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찾기 위해 기획된 선운사 특별 템플스테이는 8월 11~13일까지 2박3일간 선운사, 도솔암, 진흥굴, 선운산 일대에서 '자연과 하나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7월의 1차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이번 특별 템플스테이는 걷기명상, 선운산 트레킹, 좌선, 풍등 날리기, 물놀이, 만다라 그리기, 스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선운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원정 스님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오는 8월 25일에도 3차 '자연과 하나되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평화의 소녀상, 부모처럼 모셔"

군산 동국사, 소녀상 건립 2주년 행사 열어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2주년을 맞았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공동대표 이승우)와 동국사(주지 종걸)는 8월 12일 동국사 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기념하는 추념식과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과보고, 헌공다례, 헌화, 추념사, 헌시 낭독,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군산 동국사의 소녀상은 다른 곳의 소녀상과 달리 일제의 만행을 참회하는 일본 조동종의 참사비를 배경으로 서 있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성원으로 세워진 만큼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공연에서는 비나리, 살풀이 춤 등이 진행됐으며, 추념식에 이어 동국사에서는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8월 12~13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군산야행 프로그램에는 군산 그린비 합창단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한여름 밤의 감동을 선사했다.

동국사와 근대역사박물관에 이르는 2㎞구간에는 근대문화유산이 인쇄된 등불이 불을 밝히는 등불거리가 조성됐다. 또 동국사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스탬프 투어, 독도 목걸이 만들기, 공예체험 등 14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과 전시, 관람행사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부처님오신날 옛 사진을 찾아요"

광주불교聯, 과거자료 수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옛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옛 자료를 찾는다. 수집 자료는 1990년 이전에 촬영된 연합봉축행사 사진과 영상, 기타 다양한 자료 등이며, 2018년까지 진행한다.

사진문화기획단장 무등 스님은 "옛 자료는 광주전남지역 불교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동안 수집하지 못해 역사기록이 사라질 염려가 있다. 이에 연합회 차원서 호남불교 역사를 정립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고려시대까지 태황사(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리)를 중심으로 무등산 인근 지역 사찰들이 이어왔으며, 조선시대에도 명맥을 유지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찰별로 이어오던 봉축행사는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합행사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062)385-131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1대 (자체 USB탑제)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중고 앰프 다량 보유!"

무선마이크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무(無)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악을 지은 자 지옥이 기다리고, 선을 행한 자는 천상에 태어납니다.

– 현우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천도재의식, 상용예불
해설 및 소리 강좌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지도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6415-3587
경남 진주 여여불음원 강주 법일 자운 합장



관 상 (손금)
● 생일만 알면 조상운, 평생운을 알 수 있다
● 스님, 천기누설 특별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 질병, 묘터, 재판, 이혼, 부도, 낙태유산,조상영가, 얼굴만 봐 도 알 수 있다.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 · 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653-5151
무상 합장

예언가 육관
– 22년 김정은 사망한다
– 25년 남북통일 이루어진다
– 27년 강한 지진 발생한다
– 29년 백두화산 폭발한다
한반도에 무슨일이 있는가? / 그대는, 가족은, 생존할 수 있는가? / 소망,승진,결혼,선가당선 등등 도통경계의 도력으로 미래를 예언하며 개인 질문에도 답해준다.
010-6357-5152
전화상담 직접상담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법당 철거 조성
정성을 다 해드립니다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인연 맺어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이원해드립니다. 연락바랍니다.
010-2395-3333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58

신통 방편력
땅 건물 가게 공장
속히 매매 성취
(좋은 땅도 봐드립니다)
010-2896-6689
광덕 합장

편백(히노끼) 시공
사찰환경 (주지실, 요사채 및 각 방사)과 힐링공간
수행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바닥,벽, 천정까지도 정성을 다해 시공합니다.
*목조건물, 신축, 증축, 개축 상담
(도량내 편의시설도 실비로 보시)
010-5737-0317
무루건업 원일 합장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대관령 철도개통 생활관
생활관 지분 200 여행힐링
(20분납) / 칠성불 모시는데 50 / 전자납골 1000 / 2020년 마감
서울포교당
02)2062-4488
(농)351-0962-1334-43 조계종간호복지 조계종 간호복지 교육원

공양주 보살 구함
신심이 깊은 가족처럼 지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숙식제공(65-70세) / 경남고성
010-7151-8400

스님 및 공양주
모십니다
(60세 전후, 남은 여생 수행하면서 함께 지내실 분)
010-6513-4771

노 비구
칠석 백중 행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봉사함
010-3221-0839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스님은 전화 하십시요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도심 포교당
위치: 부산 쾌법동 최고요지 / 포교당 2층 140평, 대로변 / 현재운영 중 / 4억5천 대출가능
010-3867-4747

공양주 보살님
모 십 니 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생활역학 강의 (자격증서 제도)
▷ 자강 : 이석영
▷ 단원 : 이병렬 선생님의 정통학문, 1년과정 초급, 중급,상급 (격국론)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저서 특허) 강의
육십갑자의 생극제화 원리 응용법
■ 단원육효 강의
■ 작명법 : 실증성명학전서(저서) 강의
본명사주의 자원오행법 원형이정법의 수리법, 음령법, 조후법, 통관법, 사상체질법 등의 체계적인 이론 연구의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문의 : 010-4470-631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0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 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 유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여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3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9호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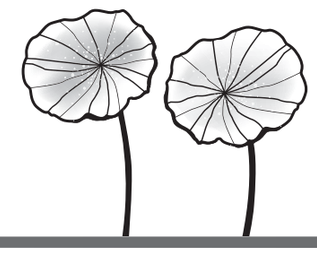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이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워 그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을 공상하면서 날아간다. 이 마음 다스리기 너무 어렵나니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 마음 잘다스린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 본생경-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실3개 등 • 가액 : 8억5천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강원 정선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공양간. 요사채. 노천불. 탑 등
- 토지 5,000㎡ • 산사찰.조용하고 위치좋음.버스진입
- 양도 : 16억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군산 사찰을 소개합니다.

- 부지 총면적 : 397.5㎡(120평) • 건물 총면적 : 287㎡(87평)
- 가액 : 5억 5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 (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부지 : 55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5억
◎ 위치 : 세종시
◎ 면적 : 1000평
◎ 법당 : 40평,차량진입
◎ 요사 : 100경관수려
◎ 양도가 : 4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예산 수덕사 IC에서 10분 거리
- 천혜의 요지 예당 저수지위에 위치한 150년된 조그만 암자
- 평수 : 약 2만평
- 산수 물 좋은곳, 예당 저수지가 훤희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5097-3468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 1동, 칠성각 1동, 산산각1동, 요사체 약40평1동
- 가액 : 3억2천만원(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상계동 사찰(급)안내

- 조용한 도심 사찰
- 토지 220㎡.요사채.법당.노천불
- 주차장 가능. 깨끗하고 운영이 잘 됨
- 스님사정으로 양도
- 양도가액 : 85,000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 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원, 월150만 시설비 2000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위치 : 서울	• 위치 : 김해
• 대지 : 750평	• 대지 : 120평	• 대지 : 2,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액 : 25억	• 가액 : 12억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산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용왕당,현재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1억 6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2채(공양실포함)
- 가액 : 2억7천만원

010-3508-7710

암자,수련원 안내

- 위치 : 상주시 화북면
- 대지 : 407평, 전 : 500평
- 법당 : 14평, 요사 : 70평
- 가액 : 5억 천만원
- 앞뒤로 병풍같이 애워싼 산이 그림 같고 집앞으로 계곡이 흐르며 마을 한쪽에 위치함

010-9334-14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부지 : 145평
- 법당 : 요사채,방3개,주방
- 경치 최고 시내 도보 2분
- 가액 : 1억 5천

010-2849-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도권의 위치
- 목조 단청, 전통사찰로써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
-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
- 가액 : 9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23번지
- 주택 밀집지역, 최상지역
- 2층 148㎡(약 45평) 방2개, 법당, 공양간, 화장실
- 가액: 보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무, 답사후 조절가능

010-2620-8482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소재	• 위치 : 창원시 소재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부지 : 6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폿집)	• 법당 : 35평(청기와,단청, 2층)
• 요사채: 3동200평(방18개)	• 요사채: 35평(종무소,1층)
• 가액 : 25억	• 가액: 3억 3천만원
• 특징 : 대가람의 사찰로 현재는 선방으로 운영중입니다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하기에좋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마산 남성동 어시장 번화가
- 3층 63평, 법당,대중방,스님방
- 가액:보증금10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3039-885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5분 거리
-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토지 300평 공유지분 7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 도심 속 깊은 암자
- 가액 : 10억

010-3867-47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2평, 창고 및 화장실 건평 총80평
- 법당 산신각은 특수 슈퍼하이철, 경량철골판넬
- 텃밭별도 년 20만원 500평
- 가액 : 1억7천

010-4726-64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
- 상가 4층 약 5~60평
- 삼존불 :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법당, 공양간, 종무소, 스님 황토방
- 약 15년 법회(현재 법회중)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산사로 이전)

010-3305-5313

팬숀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 일월산 부근 삿갓산 아담한곳
- 마당 앞 계곡물 1급수 자연수
- 땅 500평, 농지 500평, 법당 20평 건축허가 완, 토목공사 완, 현대식 목재건물 요사채 30평 완공
- 가액 : 2억 4천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422-9번지
- 법당, 산신각, 주지방
- 주방,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500만원, 월 40만원

010-3927-574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KT 옆
- 제반시설 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 60평
- 2층 건물 2층, 옥상 60평, 사용 가능
- 교통요지, 터미널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3,040만원

010-3452-1123
042)526-1123

부산 빌딩 사찰

- 위치 : 부산 온천장 중심지
- 대지: 54평, 4층건물전체 각층 30평, 총 100평 이상 주차 3대 이상
- 특징 : 지하철 7분,버스 30초 거리 건물인테리어 1억 이상 타용도 사용 가능(근생시설)
- 가액 : 6억 8천<10년전 가격>

010-4583-0539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중 심가
- 대지136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식당겸 요사74평,
- 그린상가 2층
- 주차장 완비

010-3752-2601

기도터(급)안내

- 소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 대지200평, 농지770평 집 1층 콘크리트 33평 방3, 화장실1, 다용도실 2 2층 법당 슬리브 판넬지붕 11평
- 사각정, 물레방아 연못, 소나무 80그루
- 양도가 : 2억 5천 급매

010-9274-180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몽땅 4억
- 몸 만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30평, 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호계 동대산
- 건평 : 약 500평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공양간 2층
- 산업 도로 톨게이트 입구
- 가액 : 6억 8천

011-874-159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대지 190평, 전 130평, 임야 300평, 답 200평
- 요사채 콘크리트 40평,법당2층, 판넬 24평,산신각 7평 콘크리트, 기와지붕 단청, 용왕각 단청 목조3평, 기타 수각, 포대화상, 심야전기
- 가액 : 8억 절충 농협 7300 대출

010-2433-9360

울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다운동 767-6(2층)
- 평수 : 30평
- 삼존불 : 아미타불, 관세음, 관음, 지장보살, 소불 60불, 후불탱화, 미타, 관음, 신중, 칠성, 산신
- 보증금 1천만원.월세4십만원 시설비 2천만원
- 현재 법회도량

010-3558-901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내, 방2개, 주방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1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노고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182길
- 신청인 : 해인스님 (변영균) 혜연스님 (노재선)

위 사찰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개혁회의 총무원장 법하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행복지수 1위 비결? '국민 행복' 위해 정부 존재

한국부탄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연재

⑤ 국민총행복지수 GNH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 부탄. 부탄은 1629년 샵둥나왕남갤 스님이 건국하면서 국가이념과 정부의 존재이유로 '국민 행복'을 선언했다.

'부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수식어는 '행복한 나라' '행복지수 1위'일 것이다. 이미 온갖 미디어에서 부탄을 행복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부탄이 정말 행복한 거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부탄=행복'이라는 수식이 성립한다. 도대체 무엇이 부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부탄은 왜 행복할까.

나만 행복하면 행복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부탄의 4대 선왕 직메싱계왕축이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이 이야기는 사실 1629년 샵둥나왕남갤 스님이 부탄왕국을 건국하며 세운 이념이다. 그 이후부터 부탄의 모든 군주와 정부조직은 이러한 건국이념을 중심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총행복지수(GNH)가 국민총생산(GNP)보다 더 중요하다." (1972년 부탄 4대 국왕)

2008년 부탄이 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의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만든 헌법 9조에는 '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2009년 부탄 5대 국왕 직메케사르남갤왕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국민총행복지수는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개발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 외면적인 행복과 내면적인 행복은 함께해야 한다."

체링톱게이 총리 역시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단순히 '기분 좋다'는 감정의 느낌이 행복만은 아니다. 타인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나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다"면서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할 때 느낄 수 있다. 자연과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고, 지혜와 자비의 방편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찾았을 때 진짜 행복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특히 청소년 자살률도 1위다. 게다가 OECD국가 중 노동시간도 가장 많을 정도로 소위 '불행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의 비리와 불평등이다. 부탄 4대 국왕이 우려했던, 즉 경제발전을 국가 정책기반으로 잡으며 발생하는 부작용인 빈부격차 · 환경파괴 · 이웃과의 단절 등을 고스란히 겪은 것이다.

행복위원회 심의로 정책 입안

부탄은 스님이 건국한 나라인 만큼 불교 가르침인 뭇중생의 생명사상을 정치이념과 국법에 적용시킨다. 국토의 60% 이상은 산림으로 유지한다는 헌법 6조가 있는가 하면, 국토 대부분이 산으로 이뤄진 부탄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터널을 뚫지 않는다. 고속도로가 없고, 공산품을 제작하는 공장도 없다. 울창한 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이 금지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탄소보다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됐다.

또한 부탄의 모든 가축들은 천수를 누린다. 소 · 돼지 · 닭 · 염소 등 모든 가축에 대한 도축과 낚시가 금지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육신에 관한 계율인 '삼정육'을 지키기 위함이다. "내가 먹기 위해 죽이지 않는다"는 계율을 실천하고자 모든 육류를 수입하고, 많은 국민들이 채식주의를 고수한다.

한국에서는 그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만 한 '행복'이라는 개념을 부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했을까?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부탄우호협회와 부탄문화원에 수없이 많은 강의요청이 쇄도한다. 사실 부탄은 불교적인 가르침을 정치학 · 사회학 · 경제학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사회적 실험을 하며 이뤄낸 것이다. 그 결과 전 국민 무상 의료 · 무상 교육을 실현했고, 행복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게 된다.

부탄의 행복 정책은 크게 4가지 기둥과 9가지 주제, 33가지 인디케이터(indicator)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둥은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 △전통문화와 가치를 보존 △자연환경과 야생동물 보호 △리더의 모범과 좋은 통치다. 또 9가지 주제는 △심리적 웰빙 △여가활동 △공동체 참여와 활력 △문화활동 △국민의 건강 △교육 △생활수준 △모범적 정치 △생태환경이다. 인디케이터는 정규교육률 · 정부활동 · 영적만족도 · 기초인권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은 국가행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부탄도 유토피아는 아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부탄을 방문해 체링톱게이 총리를 만나 국가정책으로 '행복'을 도입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부탄의 보건복지부장관은 방한해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며 행복 정책 도입을 토론하기도 했다.

물론 부탄이 유토피아는 아니다. 분명 부탄도 세계화 물결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했고, 최근 청소년 우울증과 인구 과밀화 등 도시적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가 정책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편 부탄문화원은 부탄 국가행복위원회와 행복한연구소 한-부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부탄행복명상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한국에서 2박3일의 워크숍 후 부탄 현지서 7박8일간의 GNH 행복명상 워크숍을 실시, 행복명상지도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어가는 히말라야 작은 왕국 부탄. 국왕과 리더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비단 한 종교나 국가만의 것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닐까 싶다.



윌리엄리 부탄문화원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에 오시면 나이 드셔서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분에게 마이크와 1미터 떨어져 모기만한 소리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되돌려 드리는 특수염불시설에 2시간의 염불에도 오히려 신명이 나는 체험을 하신 후 이 시스템을 이대로 법당에 옮기면 스님 일생 중 가장 확실한 성공이 되며 아울러 보살님들이 스님 염불소리가 테이프 소리보다 몇 배 낫다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이곳은 특수염불시스템 외에도 각종 음향(마이크 방생용) 등을 고루 갖추었으니 꼭 오셔서 소리구경 하세요.

※ 단, 오시기 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약속하시고 사찰 관계자들과 함께 오시면 소리를 판단하는 객관적 검증이 됨으로 스님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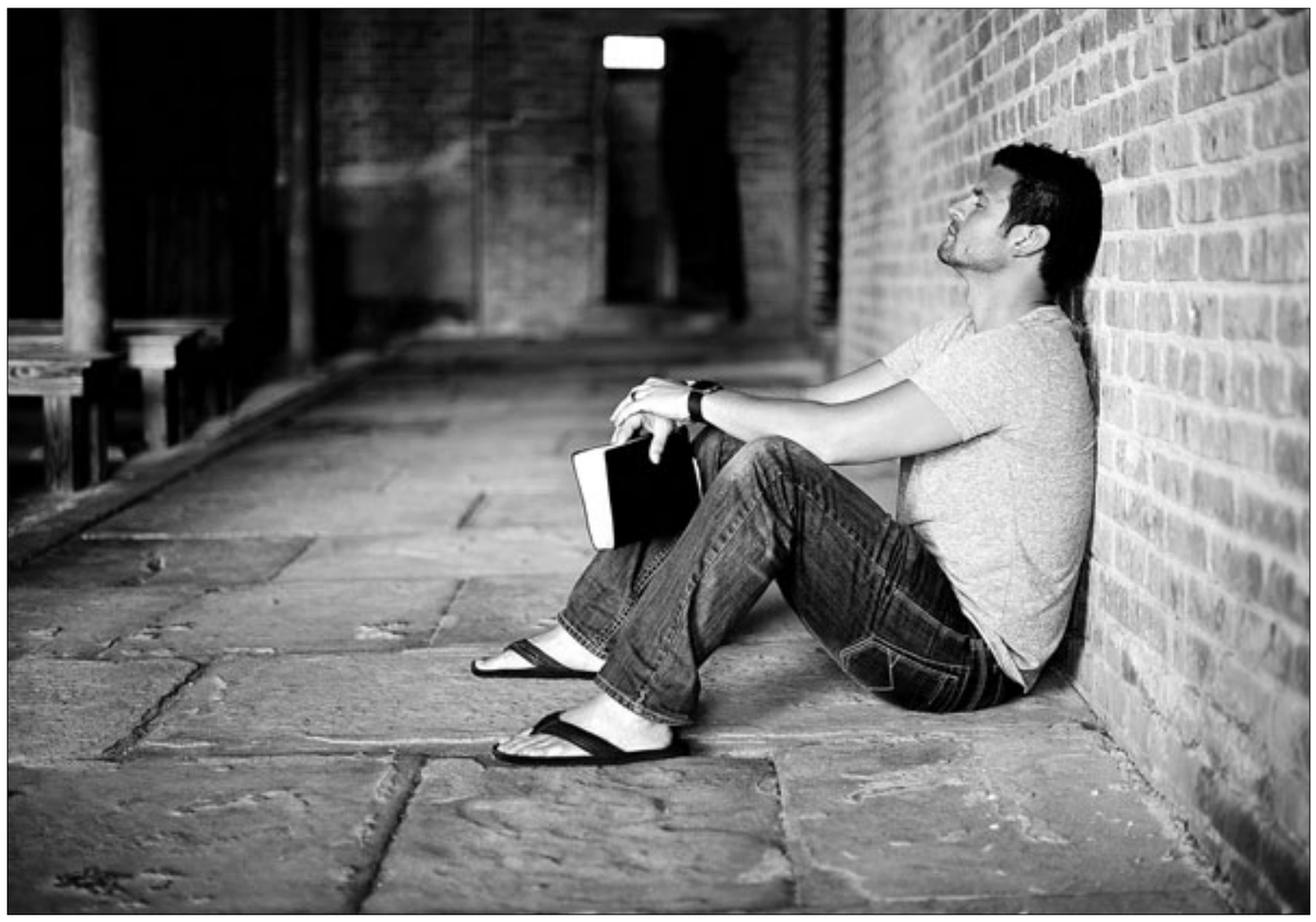
(주)염불소리 ☎ 055)343-1191 / 010-9471-2026

무심코 뱉은 말이 死活 결정한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⑰



말로 인한 상처와 좌절감

비행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면담에서 한 청소년이 자신의 현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한 말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는 친구들과 장난이 심했고, 때로는 친구를 때리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싸우는 것을 본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면 나중에 깡패가 될 거야"라며 야단을 쳤다. 그 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으나 여전히 남들과 자주 싸웠다. 그럴 때마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깡패가 되는 건 아닐까? 나는 깡패밖에 될 수 없어' 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되어 결국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만일 그때 담임선생님이 '깡패'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너는 힘이 세니 운동선수가 된다면 잘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그러한 예언이 적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어른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장래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예언적 결과' 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 말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활(死活)을 결정한다. 이 소년은 담임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행 · 불행이 갈린 셈이 되었다. 우리는 때때로 청소년을 선도할 때 그들이 저지른 비행을 들추고, 그것이 사회적 ·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애쓴다.

그렇게 지도할 경우 대개의 청소년들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동시에 가슴으로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잘못에 대한 반성 대신 거부감이 들면서 오히려 저항행동을 하게 된다.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만든 나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원망하는 부정적 감정만 깊어진다. 잘못된 점을 일깨우려고 애쓰는 일은 잘못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 잘못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마치 어둠을 걸러내기 위해 밤새 버들키를 흔들면 어둠이 사라지기보다는 사라지지 않는 어둠에 대한 원망만 깊어지는 것과 같다.

어른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이 던지는 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번 상담에서 동료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만났다. 이 학생은 1학년 초에 귀농을 꿈꾸며 제주에 온 부모를 따라 서울에서 제주로 전학을 왔다. 온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학생들이 "너 연애 해봤니?" "너 그것 좀 보자"라며 괴롭히자 학교 가기가 두렵고, 남들을 만나기 싫어지면서 우울증이 생겼다. 이 학생은 부모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번갈아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마지막 희망으로 필자를 만나게 되었고, 상담과 명상, 정신과 협조를 받았으나 결국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필자는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 시절의 아픈 경험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직접 지켜보았다.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중학생 이 모군이 투신해 숨진 사건은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한 달쯤 뒤 경찰의 수사에서는 이군이 왕따를 당한 이후 일들이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학교에서 이군 주변의 학생들이 재미삼아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라든가, 이군이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를 뒤로 빼 넘어지면 깔깔대며 웃는 행위라든가, 이군을 '정신병자' 라고 소문을 내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이군을 좌절과 분노로 몰고 갔으리라고 본다. 사실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만한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

우리는 보통 마음에서 분노와 공격성, 적의가 일어날 때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불쾌하고 품위 없는 것이라고 보거나 심지어 도덕적인 면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꺼려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동을 거칠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밖으로 표출되려고 한다. 이 에너지가 파괴와 연결되면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을 향하면 자살로 이어지고, 타인을 향하면 살인으로 이어진다.

> **"남의 잘못 대하는 태도에 배려 없으면 저항 일으켜 자기중심적 사고 벗어나 상대방 이해부터 선행돼야"**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있다. 이를테면 분노가 있는 사람은 많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 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잘못된 것' 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정적 감정은 자신을 보잘 것 없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을 품게 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에너지는 타인으로부터 그에 맞는 반응을 끌어내게 한다. 그러면 결국 보잘 것 없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쉽다. 모든 면에서의 대접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부유하면 부유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필자가 교육대학에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정교사를 했을 때의 일이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의 누나가 있었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녀의 행동이 곱지 않아서 그 느낌을 일기장에 썼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부모가 좀 보자고 하여 갔더니 학생 가르치는 것을 그만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연유를 물었더니 주저하면서 "혹 내 딸에 대한 험담을 일기장에 썼느냐"고 물었다. 약간 당황하며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딸이 그것을 본 모양이라고 했다. '아차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벽에도 귀가 있다더니 내 일기장 속의 말이 어쩜 이렇게 전달되다니. 벌써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그 당시 어리석었던 내 행동을 떠올리니 여전히 부끄럽다. 그런 나의 행동에 학생의 누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이며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했을까?

진정한 힘과 권위는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때 자아의 주인이 되기 시작된다. 나는 남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충동이나 습관, 생각, 반응 등을 통제할 수 있다. 의식이 낮은 사람은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만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행위만을 본다는 것은 의식의 범위가 그만큼 제한되어 자기 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자기를 포함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나의 인생여정에는 훨씬 더 많은 영감과 깨달음이 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근원적 힘이 있다. 하나는 증오의 힘으로 이 힘은 '죽이기' 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다른 하나는 사랑의 힘으로 이 힘은 '죽기' 를 겁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이 두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죽이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은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죽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차려서 이 생각이 자기중심의 생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다음이다. 이러한 연속적이 마음의 작용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나와 남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언어든 신체적이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필자는 손자와 손녀 네 명이 있다. 모두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구는 더 사랑스럽고 누구는 덜 사랑스럽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지만 그런 마음이 때때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그들이 알게 되면 서운하겠지만, 아마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이를테면 어떤 손자에게는 전화를 덜 한다든가, 용돈을 주는 기회가 더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손자와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이 하는 행동은 나만 모를 뿐 손자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직감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 마치 내 내면의 감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반응한다. 명상을 하는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을 비교하지 말고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더 깨어있어야 할 것 같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남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다가가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기보다 에고의 행위다. 말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활(死活)을 결정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넌 실패했어' 라는 말을 '넌 실수를 배우는 중이구나' 라든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구나' 대신에 '깨우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한다면 훨씬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9.2(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 오후 6시 · 목요반 (목) 오후 2시 · 통신반 CD 발송

학 기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과 목	1. 화엄경 2. 아미타경과 정토 3. 대승불교와 밀교(천수경)	4. 불교의 체계적 이해 5. 불교문화 6. 선불교	7. 근본불교 8. 반야심경 9. 유식불교	10. 인도불교 11. 중국 · 한국불교 12. 법화경
교수진	법산스님(본대학장)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황안스님 김호귀교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박종교수 차차석교수 정병조교수			

■ 모집인원(불교학과) : 10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7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한글의식반·전통의식작법 [9. 9(토) 오후 1시 30분 개강] (2년과정)
전통범패의식반 [9. 13(수) 오후 2시] (2년과정)
불교다도학과 [9. 12(화) 오후 2시] (2년과정)
불교미술학과 [9. 7(목) 오전 10시 30분] (3년과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2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대행 스님

일체와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이번부터는 질문과 토론에 역점을 두자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이렇게 악수가 없으면,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영 캄캄하게, 이론으로만 듣지 자기가 실천으로 옮겨 보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질문을 할 것이지만 여러분도 질문을 하시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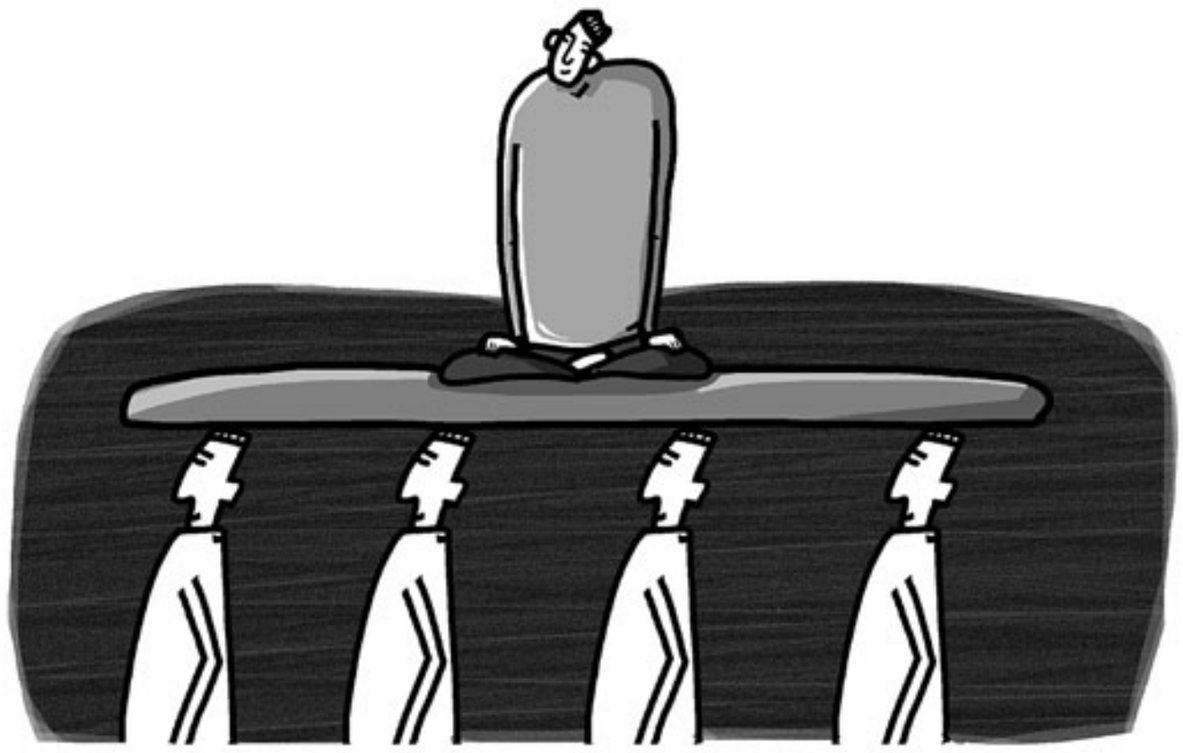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큰스님, 항상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촌에 사는 신도입니다. 제가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맺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러서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수원 지역의 여러 도반들과 법사 스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마음공부의 도리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알고 가야 하고, 깊게 맛보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고 가야 할 유일한 보물로 생각하고, 크든 작든 간에 생활 속에서 이 법의 도리에 따라 정진하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작은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합창 단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하고는 싶었어도 바쁘다는 생각에 갇혀 가지고 도저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규사업 일로 한 달에도 서너 번씩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항상 퇴근이 늦는 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를 낼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마음을 진짜로 한번 내어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덥석 가입을 해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합창 연습이 있는 날은 다른 약속이나 회사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되더라도 그 날은 쏙 빼고 가게 되고, 또 저녁에 생기던 그 많은 약속들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연습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인공이 전체를 다 조절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도반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도 안 잘립니까?" 하고 농담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도 안 잘리고 있고, 합창단에서도 안 잘리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합창단에 가입을 하기 이전에도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간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은 꼭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었기에 여건은 쉽지 않았지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생각을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이 합창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작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생각으로 헤아리기보다는 근본 자리인 참주인에게 몰락 맡겨 놓고 저는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속을 때가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살아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여간 든든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월급이 깎인다든지,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해서 다들 불안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을 해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 너 아니냐. 네가 잘 인도해!' 하고 주인공에 굳게 맡기고 당당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제 넘긴 7월의 달력에 '이 생에서 한 차원을 더 올려라.' 하시는 스님의 법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마음을 다잡아서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인간까지 왔으니만큼, 이 인간 중에서도 진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장자 자리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보림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억겁을 통해서 겪어온 관습이나 욕심이나 아상, 아만 이런 모든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잡아먹는 거, 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뺏어 먹는 것, 이런 행위를 함이 없이, 둘 아니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둘 아닌 도리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이제 어지간히 좀 알았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여지껏 질문 한 번도 해 본 예가 없죠, 네? 그게 여러분이 완숙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나서 너풀거려야 바람이 부는 소리도 듣고, 흙냄새도 맡고, 거름 주는 것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분다 하면 뿌리를 좀 널따랗게 잡는다거나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알고 이런 식물이라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만큼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의식과 그 모두가 내 주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장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둘 아니게 조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두가 항상 그렇게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고 내 이 한마음에서 들고 나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 마음이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갑니까? 마음이 먼저 가고 안 가고 간에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이 가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반갑게 마음이 내어지고, 또 그냥 인사를 해야겠다 하더라도 인사하기 위해서 손이 갑니다. 그거 뭐 정확합니다. 또 마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는 손이 안 내밀어지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모습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는 차원이 주어집니다. 차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습과 삶도 주어지는 거죠.

지금 테레비를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서 연기하는 것을 보면 아주 진짜처럼 하죠. 진짜로 잘하죠. 역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짜처럼 잘하는데, 우리도 진짜처럼 살고 있단 얘깁니다.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차원에 따라서 삶도 주어졌고 모습도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지 거기서 빼고 끼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팔자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자재권을 갖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왕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오는 갑자기 어린애를 낳아서 "으-앙" 하고 우는 거를 말하는 것이고, 자라기 위해서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살면서 배우는 것을 바로 점수라고 이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탤런트처럼 사는데, 가만히 생각들 해 보십시오. 우리가 탤런트라면 그냥 아무 역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맡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죽는 역, 또는 아주 하(下)의 사람의 역, 강도 역, 사기 역, 그런 역을 맡아서 나가라면 아마 안 나갈 겁니다, 죽는 역은 더군다나. 그렇죠? 진짜로 죽는다면요. 그런데 그 탤런트들이 진짜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 A18면으로 계속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회향선원의 회향
회향선원(회향복지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입주하시고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3년째 퇴실을 원하시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 1층 : 12평 1억 (3人 까지 거주 가능)
• 2층 : 9평 5천 (2人 까지 거주 가능)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계단 없는 계단을 밟아서 차원의 급수를 높일 수 있어야

☞ A17면에서 계속

그 역을 맡아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을 다 거기 놨을 때 그것이 일차적인 보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보림이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륙도 같은 데, 깊은 산속 같은 데, 걸어가다가 큰 돌이 서 있으면 '참, 저 돌 잘생겼다.' 하고 쳐다볼 수도 있죠? 또 그런 곳이 아니라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든지, 작든지 크든지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지고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 한 그루도 그렇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나무들이나 돌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도 공부의 단계니까. 또 없어요? 나무들이나 돌이나 어떠한 거든지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엄연히 손 없는 손이 내민 겁니다. 손 없는 손이 나에게 손 없는 손으로 '잡아 다오.' 한 겁니다. 그러면 잡아 주는 순간 둘이 아니게 그냥 하나가 돼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둘이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없는 손을 건져 줄 때는 없는 손에다 넣으면 손이 둘이 아니게 되고, 형체가 없으니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 아닌 공부의 실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를,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자기 자신과 통했단 얘깁니다. 통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나무로 통해 가지고, 돌로 통하든지 해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 다오.' 하는 겁니다. 둘 아닌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옴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싹이 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싹이 트여서 그 싹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둘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기죠. 조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없는 도리로, 손이 있든 없든 그대로 둘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번째 보림할 수 있는 도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느냐? 얻었다면 내놔 봐라.' 이렇게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바쁩니다, 지금.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어 갑니다. 그래 자꾸 그것을,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면서 자꾸 놔야 하겠죠. 그리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라도 15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울지 않는 어린애 젖 주는 법 없죠. 여러 애들 중에도 그냥 막 악을 쓰고 우는 어린애를 얼른 안아서 젖을 주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이러는데, 뱃속에 어린애가 들었을 때에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애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마음이 가니까 손도 그냥 불쑥 가더라,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손이 심부름하듯이, 몸은 물질세계에서는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을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 몸뚱이가. 진짜 마음은 좋고 나쁜 걸 가려서 딱 악수를 하는데, 그 좋고 나쁜 거를 먼저 가려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이 가죠. 그러나 죽기보다도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 놔라.
>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 그 선장한테 맡기고 놔라.

우린 일상생활에서, 내 몸속에서, 내 몸으로 움죽거리는 데서 모두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살던 사람들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심안이 밝아서 사는 사람들은 법안을 알아야 하고, 법안을 알아서 사는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하고, 그 뒤에는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불안으로서의 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서 보면 심안이다 불안이다 육안이다, 이런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권으로서 자유스럽게, 육안으로 보려면 보고, 심안으로 보려면 보고 뭐,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때에 따라선 질문을 할 때에, 즉 정신세계의 무의 법이 닥쳤을 때, 이 심안의 스승이 자기를 인도할 때…, 왜냐하면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즉 말하자면 부는 자기 조상입니다, 즉 자기입니다. 자기와 지금 현재의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했다 할 때, 그것이 상봉을 해 가지고 고정되게 만나고만 있으면 공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면 애비가, 즉 주인공이 내 지금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돼 줘요. 그리고 마음이 가만 있으면 이 자(子)가 그냥 거기에 한데 합쳐져 버리구요. 아버지로 하나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부르는 건 이름입니다. 가만 있으면 그냥 애비 부처가 돼 버리고, 생각을 했다 하면 그 애비가 자식한테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 하면 자식으로 돼 가지고…, 그러면 또 보현보살이 되죠. 그게 이름이죠. '아, 내가 뭘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게 되면 보현이 돼 줘요. 그냥 일시적으로 보현이 돼 준단 말입니다. 부처다 법신이다 보현이다 따로 없이 그냥 부처, 문수가 보현이 돼 줘요, 그냥. 하나가 돼 버려요. 하나가 되면 그대로 움죽거리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에, 즉 '움죽거리지 않고 움죽거리는 것과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는 것과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소리는, 악수하는 걸 봐도 이게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마음이 가면 손도 그냥 동시에 가는 거니까 이게 모두가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無)의 법이 따로 있고 유(有)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여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모든 거를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법을 자유스럽게 들이고 내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들이고 내는 자유로운, 그 자재로운 생각이 그대로 법인 줄 알아야 한다. '법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법으로 판단이 나지만, '공법이다' 이런다면 판단이 나면서도 공해서 지혜롭게 돌아가죠. 너도 나도 다 편리하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모두 이렇게 발현이 돼서 내가 그 소리를 듣게끔 되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듣게끔 되고, '손을 잡아 다오.' 하는 소리를 듣게끔 되고, 내가 손을 잡아 줄 수 있고 이런다면 손을 잡는 순간에 둘이 아니게 되고, 나를 거쳐서 내 그릇에 들어갔다가 금방 거쳐서 그냥 화현이 되고….

천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랬을 때, 만약에 길을 가다 오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지내 줘야 옳겠습니까? 뭘 차려 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라도 만들 수 있고, 또, 배가 고파하면 전부 배부르게 먹인다 이겁니다, 법공양으로. 그래서 천도를, '나'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잔소리가 필요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스쳐 가기만 해도 그건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재가 따로 없죠. 그래서 물건을 쭉 차려 놓고 천도를 하면 점점 덧대기가 붙어서, 그 습이 그냥 떨어지질 않아서 조상들을 영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종자로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 불종자는 불종자인데 불성의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할 수 없단 얘기죠.

질문자2(남) 심인회 총무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활 속의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님이 이미 좀 얘길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생활과 불법이 따로 있지 않고 또 마음공부와 생활이 따로 있지 않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가정 일이나 일상적인 일은 마음공부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먹고 자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와서 직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의 논리는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아 가는 것이구요. 두번째, 경쟁의 논리는 남을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해야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네가 없고 너와 내가 없는 그 본래의 마음자리에다, 자신의 집착과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놓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선원에 다니면서 직업에 대해서 좀 나태해졌다.' 또는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간혹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그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게 바깥으로 보입니까, 나태한 게? 하하하….

질문자2(남) 그게 아니구요, 모든 직장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등 이등 삼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기존에 일등하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일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치하고….

큰스님 그래요. 그런데요, 일등을 하든 일등을 못 하든 그 소관이 주인한테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가니까 손이 갔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갈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댁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악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사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함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마음이 한 일이지 그 펜대를 쥔 손이 한 게 아니단 얘기죠.

질문자2(남) 그러면요, 차후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선원 식구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위대한 어떤 인물도 나올 수 있어서, 물론 저는 우리 선원이 안양에 있고 우리 지원들이 좀 허름한 데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원이 때에 따라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또 나라의 대통령도 공부도 같이 시키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학으로, 경을 배우는 학승들이나 그 제자들은 많지만 선 제자들은 드뭅니다. 선방에 가서도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게 아니구요, '이게 뭣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딴 화두를 잡고 간화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선이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自神)을! '자신을 믿어라' 이런 겁니다. 없어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라' 이런 겁니다,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체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남을 해롭지 않게 공정하게, 자기도 밥줄 떨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주인한테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공정하게 할 것을 믿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봉 옥천사 1,000일 지장기도 안내 행

천년도량 옥천사에서는 1,000일 지장기도 참회대법회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 장 소 :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대웅보전
■ 동 참 비 : 100일 기준 2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532-6151-2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천장사)



천장사 방문을 원하시는 분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므로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트로 5분거리)

주지 오명 합장
충북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 3739-30 단양 옥천사(구,천장사)
H·P 010-5960-2085

| 불자 세상보기 |

낙후된 우리의 문화재 인식



강우방
세계조형사상연구원장

만취 여대생 첨성대 올라 셀카
日 도다이지서 한글 낙서 발견
한국 문화재 인식 보여준 사건

특히 불교 문화유산에 관심 無
문화재 훼손돼도 언론 안 다뤄
교육서도 불교문화 우수성 배제

정책과 교육 부재 가져온 결과
인식 변화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최근 일본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다이지(동대사 · 東大寺)' 건물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오밤중에 술에 취한 여대생들이 울타리를 넘어 1천4백 년 된 국보 31호인 첨성대를 기어올라 셀카도 찍었다.

국내외에서 일어난 일은 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국내 사찰이 방화로 하루 밤에 사라진 일이나, 심심산곡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유서 깊은 유적과 작품들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지만, 사건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첨성대와 일본 도다이지는 세계적 유적이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곳이니 모두가 볼 수 있으므로 사건화되어 언론 매체가 일제히 떠든다. 그러나 눈에 띠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유적은 훼손이 되어도 아무도 모른다.

필자가 국립박물관에서 미술부장으로 재직하던 1985년에 중앙청 청사를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불화실(佛畵室)'을 마련하여 불화를 전시했으며, 불화가 워낙 커서 진열장에 넣지 못하고 난간으로 접근을 막았으며 경비를 철저히 부탁했다. 어느 날 전시장을 돌던 필자는 큰 불화가 날카로운 면도칼로 대각선으로 3미터 길게 훼손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 필자의 책임을 통감하며, 곧 심혈을 다하여 원상 복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찌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그리도 관심이 없고 훼손되어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일까. 제보를 해도 언론은 반응이 없다. 그런 사건을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학자들이나 문화재 관련 관청이나 언론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장 뼈아픈 일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문화유산은 불교미술이다. 박물관에 가거나 산과 바다에 가거나 모두가 불교미술이다. 유교 건축이나 심지어 궁궐 건축이나 모두 스님들이 지은 것이어서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제는 일반 언론에서는 불교를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불교미술이 훼손되어도 기사화를 거부하기 까지 한다. 즉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 등 우리나라 종교들을 평등하게 다루려는 의도가 있으니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독교와 불교의 관계는 실로 염려스럽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인 분열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즉 정신적으로조차 양분되어 분열되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비록 조선시대에 불교가 핍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층계급은 모두 불교신자였으며, 몇몇 왕들은 불교를 크게 진작시켰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승병(僧兵)들이 나라를 구하였기에 전국의 사찰들의 복구사업이 나라의 지원 아래 활발히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위용을 회복하고 크게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용마저 사찰과 국가 감독기관에 의해 잘못 보수되어 훼손된 바가 많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점점 강조하지 않고, 다른 종교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통탄스럽다. 불교의 세(勢)가 상대적으로 점점 약화됨과, 불교계 자체의 무관심이 최근 이러한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글 전용도 문제이다. 세종대왕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썼다. 그 전통은 500년 동안 이어졌는데 한글 전용을 주장하니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멀어져서 젊은 층은 말을 해도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국가 정책의 부재와 올바른 교육의 부재, 그리고 불교계의 무관심 등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우리나라 문화의 바탕인 불교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교미술이 점점 훼손되어 갈 것이 분명하여 가슴이 아프다. 불교미술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가치가 있다는 진실도 모르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외국에까지 가서 불교미술을 훼손하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누가 이런 한국문화의 진작이란 국가대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社說

불교인성교육 자생력 키워라

최근 포교원 인성교육 계발 인증위원회에서 제출된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대거 보완 제출을 요구 받았다. '차문화' '중독 예방'의 주제인 만큼 불교 가치 체계화해 담아야 하지만 이론적 근거나 지도자의 실참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신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정작 이를 진행하는 지도자들에게서 불교가치를 전하는 것을 확대할 시점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에서 불교계는 이웃종교계에 한발 앞서 있었다. 명상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배제한 인성교육이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 사업인 청소년 마음등불에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불교 인성교육을 듣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불교 가치를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심의에서는 불교용어를 사용하는 것 조차 가렸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생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재가 교수를 중심으로 불교가치를 확산시키자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일고 있다. 그렇다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결국 일반시민, 불자들도 불교 인성교육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 효과성 검증, 언론을 통한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

현재 인성교육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불교계 단체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이런 시점에서는 종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구프로젝트를 발족해 불자 교수들을 축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

불교 가치가 없는 불교인성교육을 과연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에 부쳐

최초의 성보문화재 종합병원이 될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건립 불사가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오는 8월 24일 위례신도시에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3,17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국고와 자부담을 포함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불사다. 2019년 완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은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성보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 · 보존을 위해서는 불교 자체 문화재 기관이 꼭 필요했고,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존도 시급했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완공될 경우 지정뿐만 아니라 비지정 불교 문화재, 일반 성보까지 진단, 보존처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기대되는 것은 '대형불화'인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처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괘불을 전문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하지만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현재 가장 큰 괘불인 보은 법주사 괘불탱을 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존센터 건립으로 얻어질 기대효과로는 문화재 보존 전문 인력 양성도 꼽을 수 있다. 불교계 전문 보존기관이 없어 관련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보존센터로 인해 향후 산학을 연계한 인력 양성 · 수급도 기대된다.

불사가 시작된 보존센터가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처리 시설로 자리잡길 기대해 본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파리와 연기법

송마나 작가

파리 한 마리가 방안에 들어왔다. 웬만하면 그놈의 침입을 눈감아 주려했지만 한 순간도 가만있지 못하고 날아다녀 정신을 쏙 빼놓는다. 급기야 녀석이 온몸으로 네 벽을 부딪치며 띵띵 굉음을 지른다. 견딜 수 없어 파리약을 안개비처럼 뿜어댔다. 딱 소리를 내며 녀석이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휴지를 들고 다가가니 무지갯빛 띠를 두른 쉬파리가 누런 알을 쏟아냈다. 아뿔싸! 그만 가슴이 밍밍해졌다.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도 힘든 노릇일까? 암컷의 출산은 더욱 고통스럽다. 금파리의 수컷도 자식이 태어나도록 짝짓기를 하면서 암컷에게 잡아먹힌다. 만물은 단말마의 고통과 목숨까지 바쳐서 종족을 번성시킨다. 탄생은 죽음을 삼키고 일어서는 것일까? 살아가는 과정 또한 양육강식으로 전쟁과 다름없으리라. 삶은 고해(苦海)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내려앉는다.

네모의 방안에서 태어난 누르스름한 파리 알들을 바라본다. 저 알들은 머지않아 파리로 부화하여 날아다닐 것이다. 파리와 나를 견주어 본다. 파리는 외형이 작아서 감히 인간과 겨룬다는 것은 우스운 노릇이다. 그런데도 나는 방금 전에 왜소한 파리 한 마리가 나의 행성에 침입해 설친다고 원폭을 쏟아 붓지 않았던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미물을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듯이.

인간 · 파리란 옷을 각각 입고
지구란 우주서 태어났을 뿐

파리는 둥근 눈으로 덮인 머리를 치켜들고 인간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듯이 앞 다리를 비벼댄다. 우리도 병균을 퍼뜨려서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그리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날개가 없기 망정이지 만약 있었다면 그 자만이 하늘을 찔렀으리라.

우리는 무아연기에 따라 인간과 파리라는 각각의 옷을 입고 지구라는 우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파리와 나의 근원은 하나인 것을. 파리는 곤충으로서의 삶을, 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우주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각의 우주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동그라미이다. 모든 만물은 저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하물며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 하나인 지구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 인연인가.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파리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할 테다. 초신성처럼 산화했던 엄마 파리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어린 알들에게 갚아주고 싶다. 알들이 성충이 되어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명상가들의 얼굴은 언제나 환하다. 명상나눔협동조합원들 역시 그렇다. 명상을 통해 대중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원력은 마치 양류관음을 닮았다.

"명상 모르핀주사 아니다, 환상 버려라"

道伴의 향기 명상나눔협동조합

지역사회 호흡하는 단체로

2015년 명상가들 모여 창립

명상심리지도사 · 강좌 운영

지자체 사업 무료 서비스도

"돈벌이 안 돼도 자부심 높아"

올바른 명상의 대중화를

종교색 없애고 대중문화 접목

지속적인 교감으로 명상 지도

'좋은 지도자'와 '도반' 있어야

나태함 없이 꾸준한 발전 이뤄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불러가는 배만큼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만족감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앓고, 삶의 목적을 잊은 채 방황하기도 한다. 언제부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명상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소위 '명상 붐(boom)'이라고 일컬을 만큼 대중화됐다.

이 같은 사회 흐름에 발맞춰 올바른 명상을 보급하기 위해 의기투합한 단체가 있다. 바로 2015년 1월 창립한 '명상나눔협동조합'이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건강을 돕고자 문을 연 명상나눔협동조합은 창립 당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나 그 이후로는 소식이 뜸했다. 2년 반이 흐른 지금, 조합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듣기 위해 서울 성북구 소재 풍경소리 사무실서 8월 9일 조합원들과 만났다. 인터뷰에는 고대승(65) 이사장을 비롯해 이용성(55) 상임이사, 김준영(56) · 정수지(42) · 송은주(37) 조합이사, 나종진(51) 조합원, 김선영(46) 예비조합원이 자리했다.

공헌 · 이익 '일거양득' 도전

명상나눔협동조합은 2015년 창립됐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소모임 형태로 운영돼왔다. 현대사회의 정신적인 병리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명상을 대중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풍경소리학교 강사와 뜻을 함께한 이들이 뭉쳤다. 2009년 '명상나눔'이라는 모임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류해오며 비영리단체 같은 사회공헌을 원하는 목소리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현실적 고민 등을 오랫동안 논의했다.

다행히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의 마음으로 명상나눔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현재 12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며 절반은 불자, 절반은 비불자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명상가들이 모이다보니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협동조합이라면 여러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논의를 시작했고, 개인 출자금 50만원씩 모아 조합을 만들었다"면서 "협동조합은 동업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개별적 전문성에 따라 강좌를 만들거나 찾아가는 명상수업 등을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명상나눔협동조합은 △명상심리지도사 1 · 2급 양성과정 △마음챙김명상(매주 목) △바르도명상(매주 수)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서 명상이 인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명상 동아리 등의 명상 수련을 돕기도 한다. 아울러 조합 창립 초기부터 주요사업으로 이끌어온 '몸맘건강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정기적으로 성북구서 개최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일대서 열리는 이 사업은 △성격유형 및 생활습관 분석 △체형분석 및 교정운동 △스트레스 측정 △명상 △아트 ·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해 무료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행사다. 이외에도 약 10회기 동안 이어지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명상강좌, 몸맘건강마을학교, 마음꽃밭 교실 안내자 양성과정 등을 실시했다.

그런데 조합 측의 친절한 설명을 가만히 듣다보니 한 가지가 허전했다. 바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윤으로 이어질만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엄연한 경제조직이기에 어느 정도의 이윤 추구는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은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조합원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한 부분은 아직까지 미진하다"며 "명상은 대중화됐지만 어디까지나 몇몇 대형 단체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은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조합 측은 2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대중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명상으로 목돈을 만져본 조합원이 없다는 점이다. 소규모 단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하다. 또한 성북구라는 활동무대의 특성상 '명상의 유료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몸맘건강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으며 명상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유료로 운영될 시 미래를 장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지금은 지자체 재정지원 덕분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년은 모르는 일이다. 정말 프로그램이 좋다면 명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렵다고 본다"며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개개인의 우선순위에서 명상이 뒤로 밀리는 것 같다"고 지역정서를 전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펼쳐온 활동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고대승 이사장은 "조합이 창립되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과 명상으로 함께 호흡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개인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풀뿌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화와 종교, 갈림길에서

명상나눔협동조합은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종교색을 최대한 없앤 것이 특징이다. 명상을 종교적 수행으로 접근하면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결국 대중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제대로 된 명상법을 지도하기 위해 수강자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지근거리에서 돕는다.

정수지 이사는 명상을 찾는 대중의 관심에 대해 "경험에 따르면 과거에는 신체 · 정신적으로 힘들어 명상을 배우는 이들이 많았다. 불면증이나 암 환자 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명상이 원활한 대인관계 또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등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 천태지자대사

B5
문화
사진작가 노세 우시조 촬영본
일반에 첫 공개

B6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 경주 남산

대중은 문화 접목한 명상에 더 감동



명상나눔협동조합원은 총 12명. 이 중에서 절반가량은 불자다. 불자와 비불자들이 함께 종교의 벽을 넘어 명상을 보급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명상나눔협동조합.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에서도 명상을 가르친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은?

2015년 1월 창립됐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에서 활동 중인 명상강사들을 중심으로 뭉쳤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건강을 추구하고,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 창립 취지다.

현재 명상심리지도사 1 · 2급 양성과정, 마음챙김명상, 바르도명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몸맘건강사업'을 성북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명상나눔협동조합' B1면에서 계속

김준영 이사는 "불교 내에서만 할 명상이라면 현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불교색을 뺄 수밖에 없다"며 "대중은 전통적인 명상보다 어느 정도 사회화 작업이 이뤄진 명상에 더 많이 감동한다. 대중문화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드라마치료와 춤테라피 등을 접목한 다른 조합원들의 강의에서 느낀 대중의 감동을 언급했다.

다양한 명상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명상할 때 주의할 점과 명상에 대한 오해 등도 물어봤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서양에서는 명상을 하며 마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논문도 다수 나왔다. 조합원들은 '지도자'와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은주 이사는 "부정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극복해야할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걸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명상지도자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준영 이사는 "명상을 기술로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때가 많다. 게다가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이 수용 가능한지 개인적 편차도 크다"며 "지도자나 함께하는 도반과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힘든 상태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전통적으로 좋은 스승과 도반이 있어야 한다고 선조들이 얘기했다. 개인이 명상을 하다 신비체험을 하거나 나태해질 때 힘이 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명상을 혼자 하더라도 함께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포교의 場 기대

선사례 없어 운영 어렵지만
길 내는 마음으로 포교 도전
학교 · 기업 등 연계 바탕으로
그물 넓혀 풀뿌리 명상 실현

특히 조합원들은 '명상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을 당부했다. 명상을 마치 특정 질병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믿고 접근하면 명상의 본질은 잊고, 단순히 효과만 좇게 되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사람들이 흔히 명상을 '진통제'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빠르게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명상을 계속하지 않는다. 결국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찾아오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면서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를 위한 모르핀주사도 필요하지만 명상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기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명상, 明과 暗

이번엔 불교계에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명상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유사명상의 대두 등 '명상의 상품화'와 관련해 최근 불교계서 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서다.

김준영 이사는 "우리나라의 명상 대중화는 대부분 외국 번역서적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기법적 측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명상에 불과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임상을 거친 효과성으로 신뢰를 주면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며 "광의적으로 볼 때 명상이 아니라고 하긴 어렵지만 솔직히 명상으로 보기 곤란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성 상임이사는 서구의 몇몇 명상법들이 매뉴얼로 정리되면서 부처님의 대기설법과 같은 개별적 지도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간은 다양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의 틀로 맞춰 교육하다보면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상 안내자들이 자기수행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은주 이사는 다양한 명상법들이 하나의 인증과정으로 변질돼 명상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객전도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송 이사는 "굉장히 저명한 요가명상 선생님이나 스님들이 서양 명상법의 기초교육을 이수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 받았다"며 "기초교육 지도자들조차 명상을 오래 공부한 이들이 아니었지만 해당 명상법이 주는 사회적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불교계엔 이런 걸 이끌어줄 인재가 정말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나종진 조합원은 "어느 명상가가 '깨달아서 뭐하느냐'고 수강생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불교가 대중에게 쓸데없는 깨달음이나 강요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수용할 기법들은 과감하게 수용하되 깨달음보다는 대중이 겪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불교명상도 사회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힘들어도 명상보급에 최선

명상을 매개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원력은 충분하지만 기댈 곳 없이 고군분투 하는 소규모 조합이 나아갈 길은 멀고 험하기만 하다. 이들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이용성 상임이사는 "명상이 시간과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이 누구나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싶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전무후무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나올 비슷한 사례들의 모범이 되고 싶다. 그물을 넓히려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전해야 하듯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대승 이사장은 "정말 조그만 서원을 갖고 지금까지 왔다. 주위에서 힘을 북돋아준다면 사회에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면서 "명상이나 마음공부는 어느 곳보다도 불교에서 하기 쉽다. 계정혜(戒定慧) 삼학만으로도 바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교계의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영 이사는 "현재 학교급별 인성교육 교재에 명상이 고등부 프로그램으로 채택돼 있다. 이처럼 학교나 기업 등과 선(禪)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며 "1차적인 정리는 거의 끝마친 상황이다. 앞으로 펼쳐질 명상나눔협동조합의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명상가들은 밝다. 특히 불교명상을 수행한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롭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정신을 알기 때문이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의 가능성도 여기에 있다. 중생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원력은 양류관음처럼 자비롭기에 이들의 서원이 사바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⑰ 천태종 개조 천태지자 대사

法華 지혜 증득, 念佛 포교 이어지다

"**"타력(他力)수행이란 아미타부처님께서 염불하는 중생을 모두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거두어주심을 굳게 믿고서, 곧장 보리심을 내어 염불삼매(念佛三昧)의 수행을 하는 것이오."**

- 〈정토십의론(淨土十疑論)〉

"



천태지자대사 진영

순풍에 돛 단 듯이 나아가는 '이행도'

이 법문은 "번뇌망상에 얽매인 범부가 어떻게 시방 삼계(윤회계)를 벗어난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에, 천태지자(天台智者, 538-597) 대사가 직접 답한 것이다.

지자 대사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가피에 편승하여, 중생 자신의 근기와 정성이 부처님의 원력과 서로 감응함으로써 곧장 서방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닦기 쉬운 길(易行道)'로 부연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순풍에 돛 단 듯이 나아감에, 잠깐 사이에 천리에 이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타력수행에 해당한다."

천태종 개조가 염불법문 전한 까닭은

정토수행의 골수를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을 본 불자들은 의아할 것이다. 오시팔교(五時八教)의 교판 등 천태교학을 확립한 천태종의 실질적인 개조(開祖)인 지자 대사(천태종 제4대 조사)가 정토법문을 설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정토종의 조사들은 대부분 후대에 추존된 분들이며 이 가운데는 영명연수 선사와 철오 선사 등 선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토성현록〉 등에는 선종은 물론 천태종, 율종 등 다양한 종파의 큰스님들이 등장한다. 이는 모든 종파의 고승들이 명심견성(明心見性)한 후 중년이나 말년에 염불삼매로 보임(保任)하거나 정토왕생을 발원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장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전에서 정토법문이 설해져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천태지자 대사의 삶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보일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서방정토와 인연

양무제(梁武帝) 대동(大同) 4년(538년) 7월에 태어난 지자 대사의 이름은 지의(智顗), 자는 덕안(德安), 성은 진(陳)씨이며, 형주(荊州) 영천(潁川)사람이다. 모친이 향기로운 연기가 오색으로 아롱지어 그의 몸을 감싸는 꿈을 꾸고 나서 임신이 되어, 열 달 후 출산함에 신비로운 광명이 방안을 황홀하게 빛냈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는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는 제왕의 상(相)이었으며, 눈썹이 여덟 무늬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대사는 아주 어렸을 때, 누우면 꼭 합장을 하였고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서쪽을 바라보았다. 조금 더 자라서는 불상을 보면 시키지 않아도 절을 했으며 스님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를 드렸다. 일곱살 때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갔는데 그 절 스님이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닌지라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읽어 주었더니, 한번 듣고는 그 많은 글을 전부 다 외웠다고 한다.



천태지자대사 진신탑.

법화 삼매 삼칠일 청진
대중에 '지혜로운 자' 호 받아
말년 염불 이론 근거 마련

18세에 상주(湘州) 땅 과원사(果願寺) 법서(法ßa) 스님에게 출가하여 곧 〈법화경〉 전체를 외우고 율장과 여러 대승경전을 공부했으며, 이후 혜광(惠曠) 율사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혜사선사 문하에서 법화삼매 증득

진(晉)나라 문제(文帝) 원하 원년(560), 선(禪)을 좋아했던 지자 대사는 광주(光州) 땅 대소산(大蘇山)의 혜사(慧思) 선사를 참문하였다. 초면임에도 혜사 선사는 "옛적에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법화경〉 법문을 같이 들은 인연으로 오늘날 다시 만났다"고 말하고는, 보현도량의 네 가지 안락행(安樂行)에 대해 설법하였다.

이에 지자 대사는 대소산에서 법화삼매(法華三昧)를 닦으며 삼칠일(三七日: 21일)을 정진하던 중 〈법화경〉 '약왕보살품(藥王菩薩品)'에 "이것(약왕보살의 소신공양)이 진(眞)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진(眞) 법공양 여래(如來)"라는 대문에 이르러 신심이 활연(豁然)하게 정(定)에 들어 법화삼매를 증득, 모든 법상(法相)을 크고 밝게 깨달았다. 그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여전히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모습을 선정 속에서 보았으며, 나중에 제자에게 "영산에서의 회상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천하 제일 법사로 '소 석가' 명성

지자 대사가 그와 같은 사연을 혜사 선사에게 말하니, 선사는 "그대는 선다라니(禪陀羅尼: 모든 법이 공한 도리를 체득)를 얻은 것이니 앞으로 모든 설법인 가운데 제일 가는 법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후 지자 대사는 과연 천하에 제일가는 법사가 되었다.

그 변재(辯才)는 천녀의 변재처럼 미묘한 것이었으며, 설법은 청산유수(青山流水)처럼 막힘이 없었다. 그의 법문을 듣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발심 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 명성이 천하에 떨치게 되자 '석가여래의 화현(化現)' 또는 '중국의 작은 석가(小釋迦)'라는 칭송까지 듣게 되었다.

36사찰 창건, 천태종 기초 다져

31세가 되자 지자 대사는 금릉(金陵) 와관사(瓦官寺)에 주석하며 선법(禪法)을 널리 펼쳤다. 38세에는 태주(台州) 천태산에 이르러 북쪽 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천태종의 터전을 닦았다. 그 후, 대사는 금릉과 여산(廬山), 형양(荊揚) 사이를 주유하다가 수(隋)나라 개황(開皇) 14년(595), 천태산으로 돌아왔다. 천태종의 기틀을 만든 지자 대사는 무려 36곳의 절을 창건하고 80만 구(軀)의 불상을 조성했으며, 승려 1만 4천 명을 직접 출가시켰다. 많은 물고기를 사들여 살려 주었으며 60여 곳에 방생연못을 지었고, 조정에 어류 포획 금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무려 20여 부 150여 권이란 방대한 저술을 남길 정도로 세간과 출세간을 더불어 교화하니 당시의 불교교육이 크게 성행함은 물론이었다. 진(晉)나라 왕 양광(楊廣)이 대사로부터 보살계를 받을 정도로 그를 존중하여 '지혜로운 자(智者)'란 호를 내릴 정도였다.

반주(염불)삼매 닦고 '정토십의론' 저술

천태종의 종주(宗主)로서 수나라 때의 불교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사는 말년에 이르러서는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정토수행에 전념하였다. 지자 대사는 〈관무량수경〉에 의거한 관상(觀想) 및 관상(觀像) 염불로 이론적인 근거를 삼았지만, 염불삼매를 주로 닦았다. 소리 내어 염불하거나 마음속으로 염불해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반주삼매(般舟三昧)가 바로 그것이다. 대사의 명저인 〈마하지관(摩訶止觀)〉에 따르면 이 염불삼매의 요점은 "몸으로 걸음을 옮기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오직 아미타불을 잊지 않고 자신 안에 있게 하는 것(步步 聲聲 念念 唯在阿彌陀佛)"이다. "모든 존재가 꿈과 같다고 염(念)하되 쉬지 말라"며, 반야와 공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염불삼매를 닦은 대사는 〈정토십의론〉을 남기는 등 정토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관음 · 세지보살 접인 받고 좌탈 왕생

지자 대사가 서문(西門) 석성사(石城寺)에서 임종에 이르자, 제자에게 명해 침상을 동쪽 벽에 마련하되 서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향을 피운 후 〈불설무량수경〉을 독경한 뒤 게송으로 설했다.

"48원으로 훌륭하게 장엄해놓은 그 좋은 극락정토에 왕생을 원하는 자가 극히 적다. 지옥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한생각 돌이켜서 아미타불을 염하여 왕생하길 발원하면 왕생을 얻게 되거늘, 하물며 계정혜(戒定慧)를 닦는 수행인이랴. 그대들은 왕생극락을 굳게 믿어 의심하지 말라."

최초의 등신불로 국청사 지자대사탑에 봉안

제자들이 스승에게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과위(果位)를 묻자, 지자 대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만약 대중을 이끌지 않았다면 반드시 육근이 청정했을 것이다. 내 수행을 줄이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기에 내 과위(果位)는 단지 원오품(圓五品)일 뿐이다. 여러 선지식과 도반들이여, 지금 관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나를 접인하러 오셨구나."

대사는 이 말을 마친 후 결가부좌(結跏趺坐)하여 마치 삼매(三昧)에 든 것처럼 편안히 극락세계로 왕생했. 이때 대사의 연세는 67세요, 개황 17년(597년) 11월 24일 미시(未時: 오후 1~3시)였다. 대사의 육신은 다비하지 않고 등신불로 봉안되었다. 이는 중국불교 최초의 육신불(육신보살)로 오늘날에도 천태종의 총본산인 국청사(國淸寺) 지자대사탑에 봉안되어 많은 가르침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다.

"육도윤회 벗어난 극락왕생 의심 말라"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과연 극락이란 곳이 있을까? 죽은 후 어디로 갈까?'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나 보다. 당시 천향사(天鄕寺)의 혜연(慧延) 스님은 대사의 원적(圓寂)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갈 형편이 아니었다. 그 후 혜연 스님이 '대사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몹시 궁금해하면서 〈법화경〉 사경으로 은연 중에 그 답을 기다렸다.

하루 저녁에는 꿈에 서쪽에서 관세음보살이 금색 신(身)으로 광명을 놓으며 나타나시는데, 그 뒤를 보니 지자 대사께서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내가 왕생극락 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고 하시고는 사라졌다. 스님은 그제서야 대사께서 왕생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석가여래의 화현'이라고까지 칭송을 들은 지자 대사까지 왕생극락을 발원하셨으니, 후대의 우리는 더 이상 극락정토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노는 입에 염불하여 속초성불(速超成佛: 신속의 윤회계를 벗어나 극락에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함)의 기연을 맺으시길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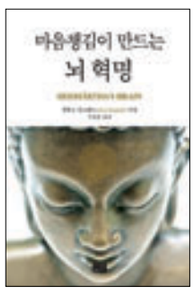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마음챙김’…뇌 결함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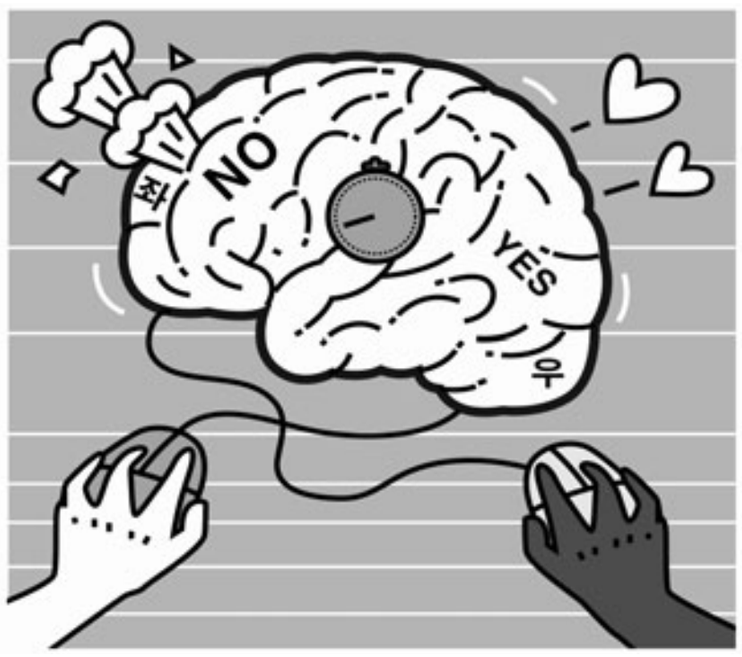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제임스 킹스랜드 지음
구승준 옮김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9800원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기업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 해소를 위해 도입, 실행하는 ‘마인드풀니스(Mindfullness)’는 서구인들에게 집중력 향상법, 그리고 뇌 휴식법으로 각광받는 명상법이다. 우리나라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돼 알려진 이 명상법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마음챙김이 처음부터 마음 다스리는 방법으로 각광 받은 것은 아니다. 명상이 서구에 알려진 초기, 마음챙김을 비롯한 명상은 종교적인 수행법으로 여겨졌으며, 과학자들이 명상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구하려면 허무맹랑한 분야를 연구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럼에도 몇몇 연구자들은 명상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명상, 특히 마음챙김은 정신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챙김은 여러 매체와 책을 통해 소개되며 각광 받는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명상이 각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성질만 생존하고, 결함은 도태되는 식으로 진화됐지만, 뇌는 완전하게 변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울증이나 중독,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진다. 저자는 뇌 결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으로 마음챙김을 꼽으면서, 그것이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한다.

마음챙김을 하는 ‘방법’을 소개한 대다수 책과 달리 이 책은 마음챙김이 우리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수많은 신경과학, 그리고 임상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여러 작용 가운데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중독 등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그 과정서 저자는 명상과 관련된 가장 초기의 연구부터 최근 연구까지 참고하며, 신경과학과 임상심리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 결과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등 마음챙김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중독에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다.



현대 과학의 뇌 탐험으로 밝혀낸 마음챙김 효과
믿음 아닌 체험에 근거한 불교 수행법 마음챙김

그래서 이 책은 ‘마음챙김을 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단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을 하면 어떻게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마음챙김이 왜 마음공부 방법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음챙김’에 대해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바탕에 깔려 있는 불교까지 다룬다는 점이다. 인간이 가진 괴로움서 벗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자 출가한 수행자 싯다르타는 마음챙김을 통해 부처가 됐으며, 지금까지도 마음챙김은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다.

그래서 불교서 말하는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음챙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행자 싯다르타가 부처 되는 과정, 그리고 부처가 된 이후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불교서 말하는 ‘깨달음’이 정말 인간이 지닌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행복(well-being)으로 이끌게 되는지 역시 과학의 시선으로 탐색했다.

각 장 도입부에 싯다르타의 출가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처가 된 후 다섯 비구에게 한 첫 설법 등 싯다르타 생애 중 인상적인 몇 장면을 소개한 뒤 이 장면에 나타난 그의 가르침이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현대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한 것인지를 신경과학이나 임상심리학 등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마음챙김이라는 불교 수행법이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 정신적인 분야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근거가 있는 체험의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속의 밑줄 긋기

-인간의 뇌가 더 크게 진화했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약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해독제를 우연히 찾았다. 자기 심리 상태를 훨씬 평온하게, 즉시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심리적 속임수다. 벤슨은 말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불안증, 분노 등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 끝에,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무 자세나 취하고 아무렇게나 호흡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효과를 봤습니다.”

-“마음챙김에서는 불편한 감정이나 감각을 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쪽을 향해 주의를 돌려서 호기심 어린 초연함을 가지고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 감정이나 감각이 자기 몸과 별개인 인식의 대상이 될 때 점차 불편함이 감소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 그 자체가 희미해진다. 싯다르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불의 숭배자들에게 ‘탐욕, 성냄, 망상’의 불로 “일체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중독 대상에 대해 갈망하는 것은 산 채로 불태워지는 듯한 끔찍한 느낌이다. 그러나 육체적 감각에 집착하고 자신을 그것과 같다고 여긴다면 그 불길에 더 많은 연료를 쏟아 붓는 것이다. 자극이 전해질 때마다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술병을 드는 행위가 중독의 불쾌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습관이 남아 있는 한 중독의 쳇바퀴는 반복될 것이며, 중독을 촉발하는 자극 또한 점점 더 깊이 각인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갈망에 대해 집중하되 초연히 알아차리면 갈망과 나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되고, 갈망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통찰을 얻게 된다.

“길이 나빠지면 옆길을 내고, 또 나빠지면 다른 길을 내면 된다”



통과통과
범일 글 사진
불광 펴냄
1만 5천원

집착하지 않는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스님들의 세간은 늘 간소하고 깔끔하다. 그리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생활 철학을 실천하느라 스님들은 몸을 바지런히 움직여 푸성귀쯤은 직접 길러 먹는다. 도심의 큰 절이라면 사정이 조금 다르겠지만, 산 속의 작은 절에 사는 스님이라면 다들 자급자족의 노하우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1인 생활의 달인들이다.

살기 좋은 양평의 산기슭에 자리한 넉넉한 절 서종사. 그곳에서 17년째 밥 짓고, 풀 뽑고, 길 고치고, 방 훔치는 담소(淡素)한 일상을 살아가는 범일 스님이 있다. 스님은 오래전부터 홈페이지 ‘조아질라고(http://joajilrago.org)’에 글과 사진을 올려왔다. 함께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벗들과의 정다운 교류, 개와 고양이, 꽃과 나무를 기르는 가지런한 마음, 몸을 움직여 절을 가꾸는 삶이 주는 만족감 등이 담소하게 표현된 스님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진실한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살뜰한 일상이 왜 소중할까?

살아가면서 점점 지혜로워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둘은 어쩌면 일상을 살피는 관심의 폭과 깊이의 작은 간격 때문에 그렇게 갈라진 건 아닐까. 공작선인장 꽃이 피었습니다. 선인장 몸집이 너무 커서 방에 두기 부담스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런 제 의중을 눈치챘는지 꽃이 말하길, “저 이렇게 예쁘거든요. 몸뚱이 조금 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범일, 미안해하면서 “아, 예…()…()…()….”

범일 스님을 보면 일상의 작은 일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비오는 날 풀을 뽑다가 가뭄 끝에 숨 좀 돌리는 줄 알았는데 사정없이 뽑히는 풀의 신세를 떠올리고, 코스모스 지는 꽃잎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인연 따라 순하게 흘러가는 자세를 숙고하고, 가만히 있는 거미를 보고 고요히 지내는 삶의 이로움을 깨우치는 식이다.

이런 성찰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어서는 이런 손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테니까. 마음을 비우고, 여관의 주인처럼 누구나 환대하는 이만이 지혜라는 방문객을 들여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불교에는 ‘곳곳에 만물이 모두 부처’라는 가르침이 전해 내려온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소중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뜻일 것이다. 그 가르침은 아마도 자기를 비우고 살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선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스님에 대한 통념을 깨는 유쾌함

새로 출가한 행자님과 밤 8시부터 두 시간쯤 매일 절을 하는데 행자님도 뽕! 푹- 하는 것입니다. 으~ 독한 거. 추운 겨울이라 법당 문을 안팎으로 비닐과 뽁뽁이로 빈틈없이 막았는데…….

“행자님 나가서 배출하시오!”

“아직 남은 속세의 독이 빠지느라 더 독한가 봅니다.”

“ -_-; ”

이 장면 앞에는 스님이 방귀를 뀌는 장면이 나온다. 겨울에 법당 문을 닫고 절수행을 하다가 스님이 방귀를 뽕~ 뀌니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스님을 보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자연스레 나오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응수한다. 그런데 자신이 남의 방귀를 마시는 입장이 되고 보니 반성이 되더라는 이야기다.

〈통과통과: 예측불허 삶을 건너는 여유〉는 스님이 전작 〈조아질라고〉 이후 8년 동안 써온 1,500여 편에서 정선한 105편의 글과 46컷의 사진을 정갈하게 엮어 만든 짧은 에세이 모음이다. 웬만큼 힘든 일도 다 ‘조아질라고’ 일어난 것이니 맘에 두지 않고 ‘통과’ 시켜버리는 스님의 여유가 계곡물에 발을 담근 것 같은 시원함을 준다. 가만 돌아보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다가와 있었다는 스님, 미래는 상상한 것보다 좋은 모습으로 차곡차곡 다가온다고 생각한다는 스님. 이 책에 실린 스님의 말씀들을 읽다가 잠깐 멈춰서, 천천히 순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가만 돌이켜보면 어떨까. 바로 그것이 어지럽고 답답한 삶을 꿰뚫는 청량한 지혜를 당신 것으로 삼는 길이다.

김주일 기자



90년 前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경주는?

사진작가 노세 우시조 촬영본 일반에 첫 공개

원원사터, 황복사터, 감은사지 등 찬란한 불교문화를 보유한 경주의 90년 전 모습은 어떨까. 1920년대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촬영한 미공개 사진자료가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뻔한 비하인드스토리까지 전해져 더욱 큰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1일~10월 31일 경주엑스포
원원사터 발굴 과정도 사진 담아
87점 일반에 최초 공개돼 '눈길'
유리재생산 업체 넘어갈 위기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문화재' 展을 9월 1일~10월 31일 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건축 · 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1889-1954)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우리 문화재의 유리건판 사진 87점이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작품들은 노세 우시조의 촬영본 700여점 중 엄선한 것으로, 원원사터 · 황복사터 · 감은사지 등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신문왕릉 · 성덕왕릉 · 헌덕왕릉 등이 포함된다. 경주 지역 사진 뿐 아니라 예천 개심사, 구례 화엄사, 개성 고려왕릉 등 기타 지역의 90년 전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노세 우시조는 1926년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가 서봉총 발굴현장을 방문할 당시 수행단 일원으로 처음 경주를 방문했다. 그는 경주의 문화유산, 특히 십이지신상에 매료돼 그 때부터 10여 차례 경주 유적지를 찾아 문화재들을 유리건판에 담았고 사비를 들여 발굴 복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근무하던 노세 우시조는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한국의 십이지상 및 경주의 발굴 사진을 찍은 유리건판을 유리재생산 업체에 넘기려고 했다. 이를 일본의 불교문화재 사진작가 오가와 세이요(小川晴暘)가 창업한 문화재 전문 사진업체 아스카엔(飛鳥園)이 구매 · 소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아스카엔은 노세 우시조의 유리건판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해 12월 박임관 경주학연구원장과 오세윤 사진작가와 함께 디지털 촬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 사진이 담긴 건판필름이 유리컵으로 재생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은 오가와 세이요 작가와 아스카엔 사진관에 대한 소개도 전해진다.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아스카엔 소장 일제강점기 경주문화재 사진전은 경주엑스포공원의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박임관 경주학연구소 원장은 "노세 우시조는 우리나라 십이지신상에 관심이 높았고 특히 원원사지의 탑지 발굴과 탑재를 모아 복원하는 전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의미가 더욱 크다"며 "90년 전 당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꿔가는 문화유산의 원형을 제대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경주학연구원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관한다.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엑스포문화센터 로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오가와 세이요 작가의 손자이자 現 아스카엔 사진관 소장인 오가와 고우타로(小川 光太郎) 씨가 참석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여는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문화재' 展에서는 1920년대 건축 • 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우리 문화재의 유리건판 사진 87점이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①원원사지 발굴모습 ②감은사지 모습.

사진제공=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문화연수원, 계룡산 도자기 특별전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공주시의 대표적 문화예술유산인 철화분청사기의 예술성을 알리고자 '계룡산 도자기와 차의 만남전' 을 개최한다. 계룡산도예촌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4~9일 KBS대전방송총국 전시실에서 개최된 전시회의 연계전이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앞선 전시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철화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에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달래고, 전국 방방곡곡서 방문하는 월 3000여명의 한국문화연수원 참가자들에게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진수를 선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는 청자토에 백자흙물을 바르고, 그 위에 철분을 이용해 문양을 새겨 제작하는 자기다. 거칠고 자유스러운 해학성이 돋보이는 예술성으로 명성이 높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박아름 기자

구산선문이 중심, 호남 성보 한 자리에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 … 10월 22일까지

신라 하대 구산선문 개창과 함께 그 중심에 있던 호남지역 산문의 귀중한 성보문화재들이 한데 모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 를 8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곡성 태안사 소장 보물 제956호 청동대바라를 비롯해 300여 점의 구산선문 관련 성보문화재들이 소개된다.

특히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이 일반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은 1457~1464년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 전해지는 사적기가 대부분 조선 후기 것임을 고려하면 제작시기가 이른 편이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밖에 국보 제42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및 국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4면홀로그램과 프로젝션 매핑(미디어 파사드) 기술로 개발돼 새로운 전시콘텐츠로 선보인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높이 280cm 이상으로, 이를 실물크기로 구현해 생생한 면모를 드러낸다.

전시는 프롤로그 '선(禪),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 을 비롯해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구산선문이 열리다' 에서는 보물 제1871호 염거화상탑지 등을 비롯해 당나라에 다녀온 신라의 승려들과 그들을 후원한 장보고 선단, 구산선문의 개창에 대해 소개한다. 2부 '호남지역, 구산선문의 중심에 서다' 에서는 구산선문의 중심인 호남지역의 3곳 선문, 남원 실상사 · 장흥 보림사 · 곡성 태안사의 진귀한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3부 '선맥이 이어지다' 는 '고봉국사 불감〈사진〉' 등 선맥을 계승한 선사들의 활동과 관련한 유물들이 한데 모인 자리다. 4부 '선과 차는 하나' 에서는 선종과 차문화에 관련된 유물 등이 소개된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박아름 기자



고봉국사 불감,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왕실 원찰 고장 남양주, 불교유물 특별전

남양주역사박물관서 10월 9일까지… 흥국사 십육나한상 등 전시

왕실의 원찰이 많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에서 보물급 불교 유물들이 대거 공개된다.

남양주역사박물관(시장 이석우)은 2017 특별전 '남양주의 보물 세상을 이롭게하다' 展을 10월 9일까지 연다.

전시는 1부 '왕실의 사찰', 2부 '남양주 왕실사찰과 왕실발원 불사', 3부 '부처님의 제자들-흥국사십육나한상', 4부 '남양주 인물과 불사' 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는 보물 제970호 원각경 언해본, 보물 제1798호 흥국사 십육나한상, 보물 제928호 봉인사 사리장엄구 등 왕실 발원 불교유물이 포함된다.

이밖에 조선의 탄생과 함께 남양주 왕실의 사찰과 왕실 발원 불교 문화유적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국보급 보물 40여 점이 전시된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옛 양주(楊州)의 중심지였던 남양주는 억불정책이 약해지던 시기 쉽게 왕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왕실 원찰이 많이 세워졌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양 수도와 가깝고 예로부터 문명을 실어나른 한강의 줄기가 흘러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면서 "남양주 보물을 통해 발현된 소망과 바람을 통해 남양주 사람들의 염원을 돌아보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의미를 반추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031)576-0558 박아름 기자



보물 제1798호 흥국사 십육나한상이 전시된 남양주역사박물관 특별전 '남양주의 보물 세상을 이롭게하다' 展 전경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역사박물관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건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천길벼랑 끝 관음 미소가 나를 반기네

저 절로 가는 길

⑰ 경주 남산 두 번째 이야기, 용장사 계곡과 신선암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선 내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한사람이 발을 겨우 디딜만큼의 벼랑길을 따라 가니 삼면보관을 쓴 보살상이 구름 위에 앉아 우리를 반겼다.

경주 남산에서 가장 높은 금오봉468m를 지나 용장사 계곡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위치에는 삼층석탑이 있다. 용장사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삼층석탑으로 세속 앞에서 묵묵히 자기 세계를 견지하는 모습이다.

상층부가 없긴 하지만 벼락과 인간의 폭력을 피해서 옛 모습이 온전히 살아있다. 이 삼층석탑 옆에 서 있으면 손금 내려다보듯 세속이 보인다. 반대로 세속의 어디에서 올려다봐도 이 삼층탑이 잘 보인다.

삼국유사가 기술한 세속도시의 풍요로움과 달리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라벌이 겪은 속세의 고통을 단말마처럼 기록하고 있다.

'기근이 일어나 자녀를 파는 자가 있었다. 황룡사 장륙상에서 눈물이 흘러 발꿈치까지 내리었다. 흰 개가 대궐 담 위로 올라왔다…….'

서라벌에 흉년이 들었거나 내란이 일어났으리라 짐작되는 시기를 불길함이 질펀하게 묻어나는 문장으로 전하고 있다.

김부식의 흉흉한 문장과 달리 용장사 삼층석탑은 몸돌과 지붕돌의 체감률이 매우 안정된 삼각형 구조물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삶에는 고요가 흐를 뿐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이치를 수행자는 안다.

탑은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이다. 탑의 원형인 인도의 스투파(Stupa)는 부처의 사리를 담고 있다. 부처가 입멸하자 말라족은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은 부처의 사리를 수습하고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렸다.

그 사이 쿠시나가르에 도착한 각국의 사신은 치열한 다툼 끝에 사리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가서 사리탑을 세웠다. 그 수백 년 후 인도를 통일한 아소카 왕이 최초의 탑들을 연다. 그는 부처의 사리를 수천 개로 쪼개 마우리아 제국 전역에 사리탑을 세워 봉안한다.



용장사 계곡 미륵장육상을 도는 도반들의 모습.

부처의 또 다른 모습, 불상
남산 능선 곳곳에 남아있어
당시 염원과 종교정신 전해

- 걷는길 : 삼릉 – 석조여래좌상 – 마애관음보살상 –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 금오봉 – 용장사곡 삼층석탑 – 용장사곡 마애여래좌상 –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 신선암 관세음보살상 – 칠불암 – 남산동
- 거리와 시간 : 약 10km, 8시간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이곳이 불국토임을 느끼게 한다.

용장사는 조선시대의 방랑자 김시습이 머물며 '금오신화'란 소설을 썼던 절이다. 금오산과 고위산 사이, 남산에서 가장 깊은 계곡에 있던 이 절은 지금은 비록 폐사지이지만 삼층석탑을 비롯해 석불좌상, 마애여래좌상, 세 가지 보물을 품고 있다.

바위에 양각된 마애여래좌상과 자연석 기단 위에 연꽃 장식의 둥근 지붕돌 세 개로 쌓아올린 탑 사이를 오간다. 내 눈길이 맨 위의 지붕돌에 안치된 목 없는 불상에 오래 머문다.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고승 대현이 이 탑을 돌자 불상도 따라서 고개를 돌렸다고 묘사한 그 불상이지만, 목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빈 하늘이 보인다.

부처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곧바로 사리탑을 세웠다. 불상은 그보다 부처 입멸 500여 년 후에야 등장한다.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인도 서북쪽을 점령하면서부터였다. 그 이전까지 불상은 인도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성자를 조각하는 일을 신성모독이라 여겨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알렉산더를 따라온 그리스 문화가 전파한 신의 형상은 인도인들에게는 일대 사건이었지만, 성스러운 부처를 가까이하는 데 그만한 빌미는 없었다.

불상은 부처의 겉모습인 동시에 부처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상은, 불상을 가까이하려는 사람들의 염원과 그 시대의 종교정신을 담고 있다. 용장사의 석불좌상은 목이 잘리기 전 신라인의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유감없이 보여줬을 것이다. 공허하다. 지금은 그 절단된 목의 단면으로 현대인이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상실감만을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현대인이 추구하는 촘촘한 사고와 시스템을 비웃듯 석불좌상 위를 공허가 꽉 채우고 있다.

이제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을 만날 차례였다. 나는 이영재와 삼화령을 넘기 위해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갔다. 칠불암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에서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다. 마치 신선이라도 만나 둘이 함께 하늘나라로 날아가기로 약속이라도 한 기분이었다. 안내표지도 없어 두리번거리는 내게 기왓장에 쓴 글씨가 보였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땅에 널린 기왓장에 흰색 물백묵으로 쓴 글씨, 그것이 내 눈엔 신선이 보낸 초대장 같았다.

한 사람이 겨우 발을 디딜 만큼 좁은 길 아래는 천길 벼랑이었다. 그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모퉁이를 돌자 아! 머리에 삼면보관을 쓴 보살상이 오른손에 꽃가지를 쥔 채 구름 위에 앉아 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땅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닌 동작, 신선암의 관세음보살은 그 중간계에서 구름을 타고 멀리 보이는 토함산으로 수평이동 중이었다. 목하, 신라인은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찬탄하고 운위하는 그들의 모습은 비천상의 그것을 빼닮았다. 대관절 신라인은 무엇을 놓아버렸기에 저토록 즐거이 날아다닐 수 있는가!

벌써 날이 기울어 신선암 보살상의 미소에 살짝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경주 남산은 등산객의 걸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 봐야 하고 느껴야 하고 알아야만 하는 시간이기에 며칠을 걷는다 해도 다 걸을 수 없다.

서둘러 칠불암으로 내려갔다. 칠불암은 암자 이름이 아니라, 일곱 부처를 모신 두 개의 바위이다. 전면의 바위에 새긴 사방불(四方佛)과 뒷면의 병풍바위에 새겨 놓은 삼존불을 합하여 일곱 부처를 이룬다. 샤카무니 싯다르타 부처와 더불어 지난 시절에 생멸했다는 과거칠불(過去七佛)이 문득 생각났다.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가? 신라에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포교사 아도화상은 인도인이거나 중국 오나라 사람으로 엇갈려 짐작되는 인물인데, 어머니는 어찌 된 노릇인지 고구려 여인 고도령이다. 삼국유사는 아도를 묵호자(墨胡子)와 동일 인물로 추정한다. 아도가 신라에 들어간 것은 어머니가 권유해서였다. 고도령은 놀랍게도 과거칠불이 유행하던 곳으로 경주를 짚으며 말을 이었다.

"네가 그곳으로 가서 대교(大敎)를 전파하면 석사(釋祀)가 동으로 향하리라."

과연, 서쪽이 아니라 동쪽나라 경주가 불국토였을까. 그 사실을 남산의 석불들과 마애불들은 알고 있으려니와, 일연의 삼국유사에도 그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는 문장이 한 줄 기록돼 있다. 절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하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한 생각의 차이

'못 살겠다'에서 '살 것 같다'까지는 커피 한잔입니다.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까진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우울한 하루'에서 '괜찮은 하루'까지는 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견딜 수 없다'에서 '견딜만 하네'까지는 2% 차이입니다.

'저 나쁜 놈'에서 '나와 같은 사람'까진 자비희사의 차이입니다.

'너무 힘든 하루'에서 '좋은 하루'까지는 1.5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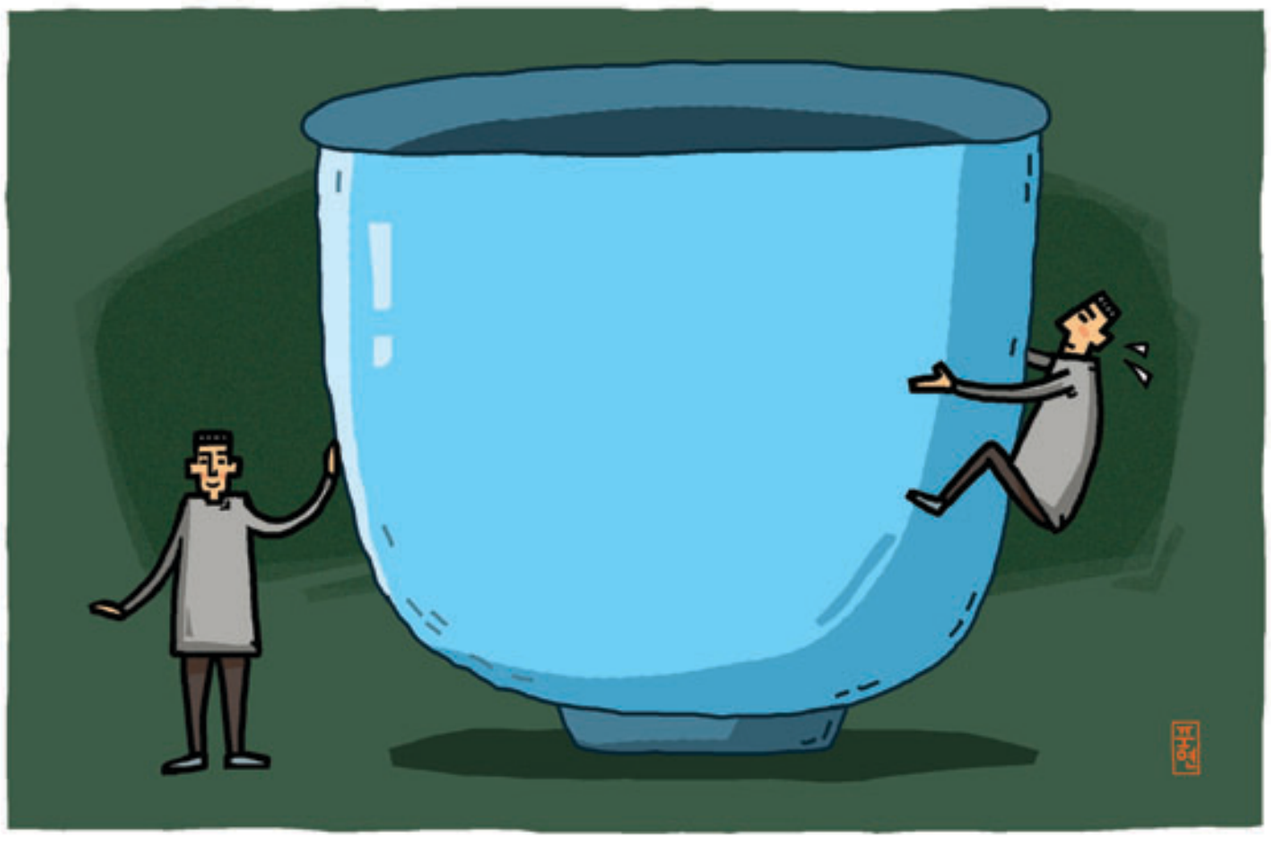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연 스님의 '青春 사이다'

④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무더위도 한 풀 꺾이나 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더니 제법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별안간 입추가 왔는데 어느새 말복도 지나갔다. 어느 덧 가을의 시작이다.

올 여름 더위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었을까? 여름이라는 말은 동사 '열다'의 명사형인 '열음'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름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과 긴장된 몸을 풀어주고 활짝 열어주는 것 같다. 실제로 더운 날씨는 우리의 몸을 늘어뜨리고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열린 몸과 마음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바다'와 같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받아' 들이게 된다.

여름이 '열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면 가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가을은 '갈무리'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가을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결실을 맺으며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면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의 '결'을 정돈하고 아름답게 닦아야 할 것만 같다.

마음의 '결'을 닦는 '겨울'을 보낸 후 맞이하는 봄은 향기로운 봄기운만큼이나 벅찬 희망과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 순수한 설렘을 보고 활짝 열어 갈무리하며 고요히 마음의 결을 내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들은 자연에서 온 까닭에 사계절이라는 자연의 운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계절에 따라 먹는 마음도, 하는 행동도 바뀌게 된다. 오래 전 부터 우리들은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해 왔고,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 왔기 때문이다. 외부의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DNA가 남아 후대로 전해졌으며 그러한 종족의 후예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단지 생존만을 보고 살아간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오히려 의미와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해 볼 수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길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어느 순간부터 자연과 함께 흐르는 법을 잊어버렸다.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되 욕심 부리지 않으며 평화롭고 여유롭게 흐른다. 자연에서 온 우리들이 자연과 무관하게 산다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고 자연의 느낌이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모습과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지, 자신의 본래적 가치를 안다면 그 자체로 충만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연이 자연을 바라보는 느낌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즐겁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자연처럼 있는 그대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다. 그 고정관념이 문제를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그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연은 꼭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을 그저 무심(無心)하게 할 뿐이다. 무심하다 하여 무관심(無關心)한 것은 아니다. 집착하지 않으며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자기 본연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의 自然
가장 나다운 것이 자연의 느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없어
침묵할 때 새로운 에너지 생겨

우리는 사실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던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삶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을 때, 우린 텅 빈 충만감을 느낀다. 이것이 곧 자연의 상태이며 그 흐름이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연처럼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가보자. 하고 싶지 않고 하기도 힘든데 해야 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 둘 정리해보자.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없애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맺어야 할 관계도 사라진다. 아무것도 아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안 만나도 된다면 이제 진정 내가 할 일과 맺어야 할 관계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 별 일 없으면 좋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만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하지 않는가? 그냥 무심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평화다. 그러한 고요함에서 행복감이 밀려온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도리어 새로운 힘이 생긴다. 밥을 안 먹으면 처음엔 배도 고프고 괴롭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본능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 보려는 에너지를 만든다. 몸이 축적해 두었던 단백질과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발생시켜 공급한다. 배고픔을 조금 참아 보면 더 균형 잡힌 체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나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은 하지 않고 잠시 침묵해 보자. 이것저것 맴돌던 생각이 하나 둘 정리되며 정말 좋은 생각이 드러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리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들리기도 한다. 내 안에 원래 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저 우리는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나 자신을 살폈을 뿐이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종종 머리가 아프거나 피곤하면 그 자리에 누워버린다. 배에 집중을 하거나 배로 호흡을 하며 그냥 다 잊고 잠에 들기도 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단 체력이 회복된다.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거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튀어 나오기도 한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스톱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자. 그냥 쉬거나 편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그것을 해보자. 무심한 자연처럼 자유롭고 걸림 없이 살자. 자연은 집착하지 않고 속박되지도 않는다. 잠시 멈추고 쉬어가자. 자연과 함께 하는 그 길이 곧 행복이다.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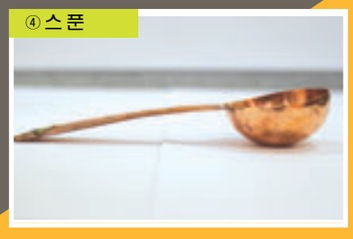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향나무향

향나무향은 수백년 풍상을 견뎌낸 향나무를 구하여 본사에서 직접 분쇄하여 염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입니다. 조연향당은 향나무향의 지속적인 연구로 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 단] 10,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15,000원 (제조 : 국내산)



(대바라)



(단)



(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